



artv

2024 August & September

Vol.176

artv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ar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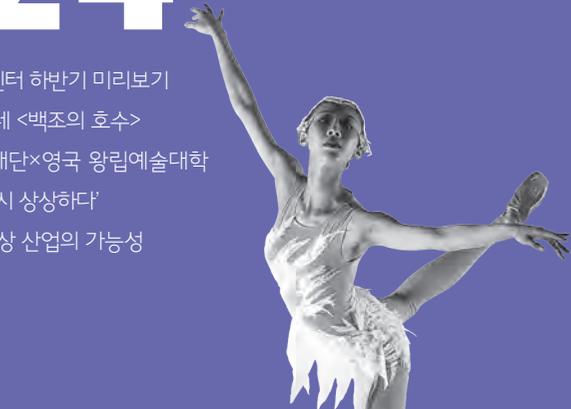
2024

- 특집      성남아트센터 하반기 미리보기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
- 돌아보기    성남문화재단×영국 왕립예술대학  
            '도시를 다시 상상하다'
- 트렌드      AI 시대 영상 산업의 가능성



F/W

PRE



VIEW

SNART



2024 08+09

Vol.176

성남문화재단



# Contents

2024 08+09

Vol.176

## 2024 SNART F/W PREVIEW

공연 2024 성남아트센터 하반기 미리보기	04
축제 2024 성남페스티벌	10
깊이보기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	12
인터뷰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 예술감독 장취안	18



더 좋은 <아트뷰>를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성남문화재단 격월간 <아트뷰>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 2024년 08+09월호

통권 176호(비매품) 2024년 8월 8일 발행  
 등록번호 성남.마 00015 | 등록년월일 2005. 9. 12  
 간별 격월간 |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이사장 신상진 | 발행인 서정림 | 편집인 심보미  
 기획·편집 남소연 nam@snart.or.kr | 교열 이지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전화 031-783-8024 | 홈페이지 www.snart.or.kr  
 편집·디자인 오니트(주) 02-337-3690 | 인쇄 더프레스

<아트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인쇄물은 친환경 용지와 친환경 공기를 인쇄로 제작되었습니다.

## V I E W

미리보기 1 2024 성남작가조명전 4 <고혜숙: 공간을 유영하는 대화>	24
미리보기 2 마티네 콘서트: 8월 '보헤미아에서 들려온 노래'	26
미리보기 3 수아레 콘서트 - 김태우와 하고 싶은 말	28
미리보기 4 유키 구라모토 25주년 기념 콘서트 'Gentle Mind'	30
미리보기 5 비르투오소들의 조우	32
미리보기 6 클라라 주미 강 바이올린 리사이틀	34
미리보기 7 연극 <의자 고치는 여인>	36
다시보기 보티스 세바 & 파 프롬 더 놨 <블랙독>	38
돌아보기 성남문화재단x영국 왕립예술대학 '도시를 다시 상상하다'	42



## C U L T U R E +

이럴 땐 이런 앱 작가 이계진	50
영화 속 클래식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벨리니의 <노르마>	52
트렌드 1 아트 마케팅의 새로운 전략과 과제	56
트렌드 2 시 시대 영상 산업의 가능성	62
생활 속 디자인 침대와 의자에 대하여	66

## S E O N G N A M +

아카데미 아카데미 플러스 명사 특강	76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 + 맵	80
8+9월의 큐레이션 월별 프로그램 가이드	85
SNART NEWS	93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96

# 2024 성남아트센터

2024 SNART  
F/W PREVIEW



© Xian Acrobatic Troupe



© Lucie Jansch



20th Anniversary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하반기  
미리보기

04. 성남아트센터 하반기 미리보기

10. 2024 성남페스티벌

12.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

18.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 예술감독 장취안

# 지금, 성남에서 오직, 성남에서만

2024 성남아트센터 하반기 미리보기

글 남수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2024년 가을, 성남아트센터가 준비한 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다. 거장이라는 수식이 어색하지 않은 세계 공연계의 별들과 국내 초연 화제작, 세대와 장르를 넘어선 명품 라인업의 야외 콘서트가 관객을 기다린다.

**머리 위에서 피루에트? 서커스와 발레의 경이로운 만남**

<백조의 호수> 147년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작품! 우리가 알던 고전 발레 <백조의 호수>는 잠시 잊어도 좋다. 오는 8월 23일~25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국내 초연을 앞둔 중국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Xian Acrobatic Troupe의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는 이제껏 접하지 못한 새로운 전율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차이콥스키의 음악 속에 중국 곡예 예술의 전통·기교, 서양 고전 발레의 우아함을 절묘하게 결합해 인간의 몸이 빚어내는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펼쳐 낸다. 남성 무용수의 머리 위에서 아라베스크 자세를 취하는 여성 무용수의 경이로운 자태에서는 심장이 절로 쫓깃해지는 ‘로맨틱 스텔’의 진면모를 경험할 수 있다. 여기에 후프와 장대, 와이어 등을 활용한 공중 곡예와 트램펄린 묘기 등 100개 이상의 현란한 아크로바틱 기술이 끊임 없이 펼쳐지며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볼거리를 선사한다. <백조의 호수>의 저주에 걸린 공주와 왕자의 이야기는 살리되 화려하고 이국적인 동양의 배경, 비극을 벗어난 결말 등으로 변화를 더해, 해피 엔딩을 원하는 관객이라면 한층 더 행복한 여운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가곡의 왕, 성남으로 돌아오다**

풍부하면서도 중후한 음색으로 긴 세월 독일 예술가곡(리트) 스페셜리스트로 자리한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Matthias Goerne는 성남아트센터와 특별한 인연을 지닌 성악가다. 괴르네는 2005년 최초 내한 무대로 성남을 선택, 성남아트센터 개관 페스티벌 공연으로 클래식 애호가들의 열띤 찬사를 받은 데 이어 2015년 개관 10주년 무대에도 함께하며 인연을 이어 갔다. 그리고 2024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  
© Xian Acrobatic Troupe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



© May Circus

년 성남문화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10월 26일(토)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Winterreise>로 콘서트홀 무대에 선다. 독일 가곡을 대표하는 걸작 <겨울 나그네>는 괴르네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음반과 실연으로 수백 회의 무대를 소화하며 극찬받아 온 대표 레퍼토리로, 2024년의 괴르네가 연륜과 깊이로 빚어낼 해석이 기대된다. 특히 이번 내한에 함께할 파트너가 포르투갈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Maria João Pires라는 점도 더욱 기대를 모은다. 특유의 섬세하고 투명한 피아니즘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피레스는 독주자로서의 눈부신 성취와 더불어 실내악과 가곡 연주에도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3년부터 괴르네와 음악적 동반자로 호흡을 맞추고 있다. 그저 노래의 ‘반주’가 아닌, 작품을 만들어 가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피레스와 괴르네가 빚어낼 아름다운 앙상블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가을, 도시 곳곳이 축제로 물들다**

푸른 숲, 맑은 공기 그리고 최고의 뮤지션들이 함께하는 야외 콘서트. 성남시를 대표하는 여름의 아이콘 파크 콘서트가 올해는 초가을, 9월 7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총 다섯 차례 관객을 만난다. 9월 7일은 최근 K-POP 시장의 대세가 된 밴드 음악으로 신나게 문을 연다. 꽃미남 보이밴드 엔플라잉, 일상의 공감을 그들만의 스타일로 노래하는 98년생 동갑내기 4인조 밴드 설SUL은 늦여름의 페스티벌 같은 파크 콘서트의 오프닝에 더없이 어울리는 주인공이다. 9월 14일에는 덤덤한



© 완성플레이그라운드

듯 평범하게 독특한 색채의 음악을 들려주는 장기하와 담백하지만 확고한 개성의 발라더 카더가든이 9월의 밤을 물들인다. 다음으로 9월 21일은 흥겨운 때창이 절로 예상되는 무대. ‘미스터롯’과 ‘미스트롯’ 출신 국민

이자람 판소리 <노인과 바다>

가수 장민호와 양지은, 정동원이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맛깔난 음악을 들려준다. 9월 28일은 민고 듣는 보컬 이무진의 차례. 초등학교생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팬층을 보유한 이무진의 감성 가득 보컬로 촉촉한 가을밤을 즐겨 보는 것도 좋겠다. 10월 5일 공연은 제2회 성남페스티벌의 개막을 알리며 성남시민과 관객 모두 하나 되는 무대가 펼쳐지고, 파크 콘서트의 여운이 가시기 전 선물처럼 찾아올 피크닉 콘서트는 10월 8일(화)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만날 수 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2024 성남페스티벌’은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펼쳐진다. ‘첨단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콘텐츠로 사람을 잇는다’는 기본 테마 아래 성남아트센터와 올동공원, 중앙공원, 판교, 성남종합운동장까지 성남 곳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시민을 만난다. 10월 11일(금)부터 13일(일)까지 선보이는 메인 제작 콘텐츠는 대한민국 대표 연출가 양정웅이 예술감독을 맡아 상상을 뛰어넘는 신선한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순수예술 감상 입문자들이 공연에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입문 프로그램인 앙트레 콘서트는 국악과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해설과 함께 진행한다. 어린이들에게도 친숙한 <미녀와 야수> 이야기를 뮤지컬 발레로 꾸민 인천시티발레단의 <미녀와 야수>(10월 3일 오후 2시, 오페라하우스), 헤밍웨이의 소설을 다재다능한 소리꾼 이자람의 해설과 판소리로 즐길 수 있는 <노인과 바다>(10월 5일 오후 5시, 오페라하우스)가 공연예술과 친해지고 싶은 관객들을 기다린다.

**오직 성남에서만, 칸의 여왕을 만나다**

연극과 극예술을 사랑하는 애호가라면 11월을 주목하자. 성남아트센터가 실로 오랜만에 엄선한 세계 연극계의 화제작이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세계 공연예술계의 명연출가로 꼽히는 ‘이미지극의 대가’ 로버트 윌슨 Robert Wilson과 프랑스 국민 여배우 이자벨 위페르 Isabelle Huppert의 조우. <르 피가로>가 ‘실로 완벽한 듀오’라고 극찬한

두 거장의 만남으로 세계 공연계에서 일찌감치 화제를 모은 <Mary Said What She Said>를 11월 1일과 2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만날 수 있다. 2019년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초연 이후 유럽 주요 극장에서 상연되며 극찬받은 이 작품은 1587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여왕 메리가 자신의 운명을 뒤흔드는 시대에 맞서 싸우는 진실을 독백으로 다룬 1인극이다. 온전히 홀로 무대를 책임지며 처절한 독백을 들려줄 위페르는 로버트 윌슨이 만든 왕좌의 유일무이한 여왕으로 선택받은 대배우이자, 칸 영화제 여우 주연상 2회, 베니스 영화제 여우 주연상 2회 수상에 빛나는 ‘은막의 여왕’이다. 1971년 데뷔 이후 100편 이상의 작품에서 매 순간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위페르는 국내 관객에게는 2024년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 수상작 <여행자의 필요>, <클레어의 카메라> 등 홍상수 감독과의 파트너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스크린에서만 보던 그녀의 연기를 무대 위 실연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특별한 기회다.

연출가 로버트 윌슨, 프랑스 국민배우 이자벨 위페르의 <Mary Said What She Said>

위페르의 연기와 더불어 음악과 조명, 무대 연출 역시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탈리아 출신 현대음악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영화 음악의 거장인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음악, 빛과 그림자만으로 만들어 내는 로버트 윌슨 특유의 우아한 시각 미학은 위페르의 절제된 움직임과 어우러져 시적인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준다. “마치 화가가 창조한 듯한 빛의 풍경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르 피가로>의 평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누구도 아닌 로버트 윌슨과 이자벨 위페르이기에 가능한 놀라운 무대가 펼쳐질 날이 머지않았다. 그 어디도 아닌, 오직 성남에서만.



© Lucie Jansch

# 첨단기술과 예술의 융복합으로 사람을 잇는다

2024 성남페스티벌

글 정보람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대리

다가오는 10월, 성남이 다시 한번 축제의 열기로 달아오른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2024 성남페스티벌'이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성남 곳곳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성남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첫선을 보였던 축제에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지나간 50년과 앞으로 그려 갈 미래, 그 속에 자리한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펼쳤다면 올해에는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의 대표 축제로 한층 더 튼튼한 뿌리를 내린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성남문화재단이 지난 7월 18일 2024 성남페스티벌 예술감독에 양정웅 연출가를 위촉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식 총연출로 인민조와 드론 공연 등을 선보이며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양정웅 연출가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폐회식에서도 총감독을 맡아 우주를 콘셉트로 한 독특한 연출과 세계 최초 디지털 성화 시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양 연출가의 파격적 연출력은 연극 무대에서도 이어진다. 지난해 연극 <파우스트>에 이어 올해는 <맥베스>까지 연이은 흥행으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출가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그는 연극부터 오페라·영화·콘서트·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약하는 전방위 연출가다.

서정림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다양한 작품

안에서 그가 보여 준 탈장르의 시도, 다양한 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연출 등이 기술과 예술,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축제를 표방하는 성남페스티벌과 가장 잘 어울리게 오랜 설득을 거쳐 예술감독으로 위촉했다"고 전했다.

2024 성남페스티벌의 기본 테마는 '첨단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콘텐츠로 사람을 잇는다'.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더 많은 사람이 축제 안에서 연결되도록 축제 기관과 장소를 지난해에 비해 크게 확대하고, 콘텐츠의 성격도 다양화했다. 10월 5일(토)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막을 올리는 축제는 성남아트센터와 울동공원, 중앙공원, 판교, 성남종합운동장까지 그야말로 성남 곳곳에서 그 열기를 느낄 수 있다. 10월 11일(금)부터 13일(일)까지는 양정웅 감독이 연출하는 메인

제작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첨단기술과 예술이 늘 상상을 뛰어넘는 그의 연출력과 만나 어떤 신선한 콘텐츠를 선보일지 기대를 감출 수 없다. 예술 콘텐츠뿐 아니라 축제 현장 곳곳에서 함께 체험하고 즐기며, 시민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들도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진다. 재단뿐 아니라 성남시와 관계 기관들이 함께 참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민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다양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성남페스티벌 개막을 앞두고 서정림 대표이사는 "어떤 새로운 예술이 등장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매년 성남페스티벌 안에서 실험적이고 다양한 예술, 그 예술로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가치들이 다채롭게 녹아들길 바란다"고 전한 바 있다. 공연장을 나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지는 첨단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콘텐츠, 그 콘텐츠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사람들이 서로 만난다는 것. 이것이 성남페스티벌이 4차 산업 특별 도시의 열매를 맺어 갈 성남시의 대표 축제로 그 뿌리를 튼튼히 내려가고 있고, 그 안에서 이미 새로운 예술이 피어나고 있음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 주는 지점일 것이다.

2023년 제1회 성남페스티벌 현장 © 최재우





## 발레와 서커스를 넘어서, 무대 위의 ‘혁명’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

### 글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1997년 국민일보에 입사해 문화스포츠부장을 거쳐 현재 선임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공연을 담당하면서 그 매력에 빠졌으며, 지금은 다양한 예술 현장과 정책을 다루는 공연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공연의 생존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동양의 곡예 예술과 서양 고전발레의 만남’. 중국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의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가 8월 23일~25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국내 초연으로 관객을 만난다. 발레와 서커스의 가장 혁명적인 하이브리드, 중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서커스 발레의 대표작이 선사하는 강렬한 전율을 마침내 한국에서도 느낄 수 있게 됐다.

### 서커스, ‘인민의 예술’로 꽃피다

서커스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시대부터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해 왔다. 다만 곡예, 줄타기, 광대 퍼포먼스 등을 다채롭게 포함한 근대적 의미의 서커스는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됐다. 20세기 이후 서커스는 공교롭게도 옛 소련을 비롯해 중국, 북한, 헝가리 등 사회주의 체제의 역사를 가진 국가들에서 크게 발전했다. 가장 큰 이유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맹주였던 소련이 서커스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육성한 것을 꼽아야 한다.

소비에트 혁명을 이끈 지도자 레닌은 1919년 서커스를 ‘인민의 예술’로 발전시키라고 지시했다. 서커스가 인기 있는 볼거리를 넘어 애국주의를 고양하고 건전한 국민을 양성한다는 소비에트 정권의 목적에 들어맞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정 러시아 시절부터 이어져 온 민간 서커스단들은 모두 국영화됐으며 1927년 세계

최초로 전문 서커스 학교가 설립되는 등 서커스 기반 시설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서커스 학교에서는 동물 조련 대신 체조 테크닉을 사용한 훈련이 주를 이뤘다. 당시 소련에서는 바람직한 신체 문화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집단 체조와 매스 게임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런

집단 체조 프로젝트에는 표도르 로푸코프, 이고르 모이세예프 등 발레 안무가들도 참여해 아크로바틱한(극예적) 동작을 보다 예술적으로 보여 줬다. 반대로 소련 발레는 체조의 영향을 받아 아크로바틱한 리프트와 도약 등을 도입해 테크닉의 발전을 이뤘다. 1956년 볼쇼이 발레단의 런던 공연을 시작으로 소련 발레단들이 서방 투어에 나섰다. 관객들을 가장 놀라게 만든 것이 바로 '소비에트 리프트'로 불리는 아크로바틱한 테크닉이었다. 남자 무용수가 여자 무용수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는가 하면 여자 무용수가 남자 무용수에게 거꾸로 매달린 채 움직이는 등의 동작은 당시 서구 발레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 세계 최정상 서커스 강국,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원형을 구축한 소련에서 서커스, 체조, 발레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모습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영향을 줬다. 중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중국에서 서커스를 뜻하는 단어는 '잡기(杂技)'인데, 공산당 지도자 저우언라이가 다양한 곡예와 기예를 통틀어 부르는 이름으로 처음 칭했다고 한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과 국공 내전을 치를 때 당원들을 다독이는 수단으로 잡기를 자주 활용했다. 그리고 1949년 공산당의 국공 내전 승리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수립된 이듬해 중국잡기단이 설립되면서 서커스의 본격적인 발전이 이뤄졌다. 발레의 경우 중국 정부가 1954년 베이징무도학원을 세우고 소련 교사들을 초청해 학생을 길러 낸 것이 토대가 됐다.

다만 중국은 선사 시대 유물에서부터 곡예의 흔적이 나오는 데다 다양한 시대를 통틀어 서커스를 즐겼다는 점에서 자국을 3000년의 역사가 있는 서커스 종주국으로 생각한다. 현대에 와서도 중국 내 31개 성\*, 시, 자치구에서 서커스단과 서커스 학교를 운영하는가 하면 전문 공연장을 운영하는 등 세계 최정상 서커스 강국으로 손색이 없다. 이런 중국의 서커스는 아크로바틱 체조와 공중 곡예를 극대화해 연출하는 데 강점이 있다.



이번에 내한하는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의 <백조의 호수>는 바로 중국 서커스가 보여 줄 수 있는 궁극의 테크닉을 놀라운 예술성으로 표현하는 작품이다. 서커스와 발레, 양쪽의 상식을 뒤집는 혁명적인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서커스와 발레의 혁명적 하이브리드, 백조의 호수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는 원래 2004년 중국군 소속인 광둥 아크로바틱 예술단(광둥잡기단)에서 초연한 것이다. 그 시작은 단원인 웨이바오화-우젠단 부부가 1998년 <동양의 백조-머리 위에서 춤추는 발레>란 작품으로 중국군 주최 문예 공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 부부는 기계 체조 선수로 활동하다가 1996년 광둥 아크로바틱 예술단에 입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 서커스 단원들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체조 선수로 육성돼서 기본기가 탄탄하며, 일부는 발레를 배우다가 전업해 표현력이 뛰어나다. 서커스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웨이바오화-우젠단 부부처럼 체조와 발레를 전공하다 전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동양의 백조-머리 위에서 춤추는 발레>는 발레 <백조의 호수> 중 남녀 주인공의

파드되(2인무)를 아크로바틱으로 표현한 것이다. 토슈즈를 신은 우젠단이 웨이바오화의 어깨와 머리 위에 한쪽 발끝으로 선 채 아라베스크나 피루에트 같은 발레 동작을 선보였다. 기량이 뛰어난 중국 서커스 단원들은 많지만, 발레와 결합한 웨이바오화-우젠단 부부의 작품은 그동안 본 적 없는 퍼포먼스였다. 이 작품은 이후 2000년 중국의 전국 서커스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2002년에는 서커스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제26회 모나코 몬테카를로 국제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최고상인 골든 크라운상을 받았다.

이 작품이 전막의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로 만들어지게 된 것은 안무가 자오밍 덕분이다. 자오밍은 중국의 발레와 현대무용 분야에서 손꼽히는 안무가로, 미국 유학을 다녀와 해외 공연계 사정에도 밝은 인물이다. 그는 웨이바오화-우젠단 부부의 파드되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당시 광둥 아크로바틱 예술단은 여느 중국 서커스단처럼 다양한 퍼포먼스를 나열식으로 보여 준 뒤 피날레로 <동양의 백조-머리 위에서 춤추는 발레>를 선보였다. 자오밍은 “이 작품을 발레 <백조의 호수> 모티프로 규모를 키워 전 세계에 선보이고 싶었다. 그렇지 않으면 안무가로서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고 훗날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 머리 위에서 춤추는 ‘동양의 백조’



자오밍이 안무 및 연출을 맡은 광둥 아크로바틱 예술단의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는 2년여 준비 기간을 거쳐 2004년 9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제8회 군사공연예술제에서 첫선을 보였다. 이 작품은 ‘백조로 변하는 저주에 걸린 공주와 왕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원작 발레의 큰 뼈대를 유지하며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 하지만 구체적인 줄거리는 동양의 공주가 나쁜 마법사의 저주에 걸리는 것을 꿈에서 본 서양의 왕자가 공주를 찾

아오는 여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여정 안에 다양한 동양 춤을 모티프로 한 군무와 함께 공연 내내 후프와 장대, 공중 곡예, 트램펄린 묘기 등 수십 가지의 서커스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작품의 하이라이트로 호숫가에서 펼쳐지는 남녀 주인공의 파드되는 유튜브에서 3000만 회 이상 재생될 정도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는 초연 당시 군사공연예술제에서 ‘올해의 작품상’ 등 10개 부문 상을 휩쓸었다. 중국 인민일보는 “광둥 아크로바틱 예술단의 <백조의 호수>가 서커스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서커스에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찬사를 받은 광둥 아크로바틱 예술단은 이후 <서유기> <소오강호> <나비 연인들> 등 스토리, 음악, 춤이 결합한 작품을 잇달아 선보이게 됐다.

2006년부터 해외 공연에 나선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는 중국에서보다 더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발레 <백조의 호수> 공연은 세상에 많지만,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 공연은 유일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발레 지상주의자들에게 위화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일반 관객에게 이보다 강렬한 <백조의 호수>는 없다. 중국에 발레를 전달했던 러시아에서도 이 작품이 <백조의 호수> 상연사를 새롭게 썼다는 리뷰가 나왔다. 냉전 시대 소련 발레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면, 21세기에 중국 서커스 발레가 세계를 놀라게 만든 셈이다.

광둥 아크로바틱 예술단은 2019년 조직을 새롭게 정비한 이후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 양산백과 축영대의 사랑을 그린 <나비 연인들>의 새로운 버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백조의 호수>가 더 이상 공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광둥 아크로바틱 예술단과 청두 깃발 아크로바틱 예술단 출신 단원들을 중심으로 2019년 새롭게 설립된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이 리바이벌에 나섰다. 그리고 3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22년 선보인 새로운 <백조의 호수>는 이전보다 풍성해진 서사와 섬세한 미장센을 보여주며 해외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남녀 주인공은 각각 체조와 발레에서 서커스로 넘어온 저우지예와 쑤위나가 맡았다. 특히 쑤위나는 라오닝 발레단 부속 발레 학교와 광둥 아크로바틱 예술단에서 각각 3년씩 발레와 서커스를 배워 기량과 표현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커스 발레는 서양 발레의 낭만과 동양 서커스의 스타일을 결합하기 위해 중국에서 만들어진 예술 형식이다. 중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 매력을 마침내 한국에서도 느낄 수 있게 됐다.



## 세상에 없던 백조를 만나다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 예술감독 장취안

인터뷰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의 예술감독이자 리더 장취안<sup>Quan Zhang</sup>은 중국 아크로바틱협회 아크로바틱 창작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중국 문화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가다. 전국 아크로바틱 대회 금사자상과 CCTV 춘절 갈라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상 수상 등, 정상급의 아크로바틱 예술가로 탁월한 성취를 이뤄 온 데 이어 현재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의 예술감독으로 단체와 작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백조의 호수> 한국 초연을 앞두고 서커스 발레 그리고 예술단의 탁월한 기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한국 관객들을 위해,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백조의 호수>” “단연 별 5개 이상” —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이 독창적으로 재구성한 <백조의 호수> 런던 초연 이후 이 같은 반응을 담은 기사들이 소셜 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공연 리뷰 기사들 역시 저희 예술단의 공연을 수준 높은 아크로바틱 기술과 감동적인 서사로 무대를 가득 채운 매력적이고 생동감 넘치면서도 우아한 작품이라고 평가했지요.

당시 런던 현지 관객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시안 예술단이 계승하고 있는 고전 아크로바틱 작품 컬렉션은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아 온 명작들이에요, 세계 최고의 아크로바틱 상(몬테카를로 국제 아크로바틱 대회 황금곡예상, 프랑스 대통령상 등)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단은 중국은 물론 다른 여러 나라의 정상들을 위한 자리에도 초청되어 꾸준히 공연해 왔습니다.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의 <백조의 호수>는 전통 클래식 발레 <백조의 호수>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그 내용 자체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영국 런던의 유서 깊은 무용 공연장 새들러스 웰스에서 공연을 진행하셨는데요, 아크로바틱 공연 <백조의 호수>는 전통적인 클

**“중국 아크로바틱 예술의  
정교한 기예와 서양 발레의  
우아함을 결합하여  
발레 애호가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래식 발레 <백조의 호수>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그와는 다른 작품입니다. 아크로바틱 <백조의 호수>에서는 다음과 같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동양의 공주는 흑매왕의 저주를 받아 백조가 됩니다. 꿈에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곤경에 처한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던 서쪽 나라의 왕자는 공주를 구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고 산을 옮긴 끝에 결국 흑매왕을 물리칩니다. 마침내 왕자와 공주는 백조의 호수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함께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의 <백조의 호수>는 고전과 현대의 미학을 기반으로 중국 아크로바틱 예술의 정교한 기술과 서양 발레의 우아함을 결합하여 서양의 고전적 사랑 이야기를 재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발레의 리프트, 공죽(요요와 유사한 중국 전통 놀이기구), 봉술, 연체 곡예, 저글링, 모자 던지기, 공중 후프 곡예 등 다채로운 고전 아크로바틱 기술을 선보입니다. 아크로바틱 <백조의 호수>는 동양의 미학과 문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이야기를 최선의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술성과 예술성을 통합하여 매우 고난도의 아크로바틱 동작을 시연합니다.

다양한 아크로바틱 예술과 융복합 장르의 작품 중에서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 <백조의 호수>만의 개성과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놓칠 수 없는 감상 포인트가 정말 많지만, 우아한 발레와 숨 막히게 하는 아크로바틱 예술을 완벽하게 융합한 장면들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겠네요. 특히 파드되(pas de deux)를 선보이며 백조 역의 여성 무용수가 파트너의 어깨 위, 심지어 머리 위에 올라 완벽하게 균형을 잡는 헤드라인 연기에 서는 압도적인 평형 감각, 통제력, 균형감으로 인연으로서 절대 불가능할 것만 같은 부동의 자세를 완성해 경이를 자아냅니다. 그 외에도 발레와 접합한 다양한 매력적인 아크로바틱 동작을 선보일 예정이죠. 또 중국 고유의 요소인 ‘실크로드’와 ‘장안’의 소재를 더해 웅장함을 묘사한 장면에서는 국제 도시 장안의 독특한 화려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은 오랜 세월이 걸쳐 곡예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왔습니다. 아크로바틱 예술이 중국의 전통 예술로 발전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크로바틱 예술은 긴 역사와 매력적인 기술을 자랑하는 전통 예술로서 중국에서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중국 문화의 일부였고, 무용·쿵푸·가극 및 여러 예술 장르가 융합되어 있는 예술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면서 보다 포용적이고 독창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점차 대중화되어 널리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아크로바틱 동작은 극도로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무용수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오직 끈기 있고 용감한 사람만이 마침내 중국인의 정신을 대표하는 아크로바틱 무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크로바틱 예술이 사랑받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아크로바틱과 발레의 두 가지 장르를 융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발레와 곡예는 각기 다른 예술 장르입니다. 발레는 부드럽고 우아하며 곡예는 강인한 힘이 넘치지요. 이는 작품에서 서로를 보완하며 독특하고 인상적인 공연을 만들어 냅니다.

순수 클래식 발레 애호가들에게는 이 공연이 조금 낯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작품을 선보이기 앞서, 발레 애호가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아크로바틱 <백조의 호수>는 중국 아크로바틱 예술의 정교한 기예와 서양 발레의 우아함을 결합하여 발레 애호가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전 해외 투어에서도 아크로바틱 발레를 전혀 접해 보지 못했던 관객들이 우리 공연을 보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꼭 직접 보시고 경이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고난도의 아크로바틱 연기에 발레까지 더한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예술성과 테크닉의 겸비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무용수가 아크로바틱 발레를 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덕목은 무엇인지, 또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만의 특별한 훈련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무용수는 아크로바틱과 발레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혹여 어느 한쪽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코치와 함께 매일 훈련을 진행해야 하죠. 무용수마다 신체적 조건이 다르고 그에 따라 잘하는 아크로바틱 기술도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일반 훈련 외에도 각각의 무용수가 받는 맞춤형 훈련이 있습니다. 사실 훈련에 특별한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아크로바틱에 지름길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고되어도 무용수들은 그저 묵묵히 땀을 흘릴 뿐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강건한 힘은 물론 용기와 인내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작품에서 관객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깨와 머리 위로 솟아오르는 발레 리프트, 당나라 시대 전통 예술인 공죽과 모자 던지기, 저글링, 연체 곡예, 봉술 등 감탄을 자아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퍼포먼스들을 꼭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



# SEONGNAM FESTIVAL

## 2024 성남 페스티벌



성남 탄천  
(야탑교-하탑교 일원)



성남시 주최  
성남문화재단 주관  
성남문화재단 후원  
NH농협은행 (주)성남시지부 후원  
031-783-8000 문의

[www.snart.or.kr/festival](http://www.snart.or.kr/festival)

10.5 SAT  
— 10.13 SUN



### 미리보기 1

2024 성남작가조명전 4

<고해숙: 공간을 유영하는 대화>

### 미리보기 2

마티네 콘서트: 8월 '보헤미아에서 들려온 노래'

### 미리보기 3

수아레 콘서트 - 김태우와 하고 싶은 말

### 미리보기 4

유키 구라모토 25주년 기념 콘서트

'Gentle Mind'

### 미리보기 5

비르투오소들의 조우

### 미리보기 6

클라라 주미 강 바이올린 리사이틀

### 미리보기 7

연극 <외자 고치는 여인>

### 다시보기

보티스 세바 & 파 프롬 더 놨 <블랙독>

### 돌아보기

성남문화재단×영국 왕립예술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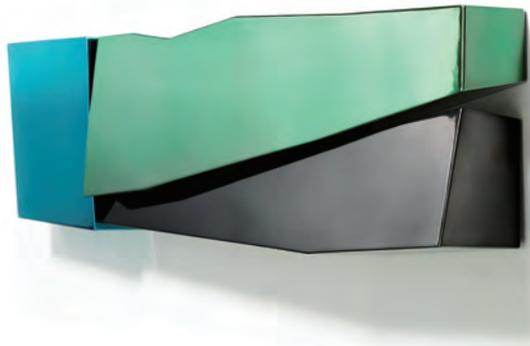
'도시를 다시 상상하다'



PRE  
VIEW2024 성남작가조명전 4 <고혜숙: 공간을 유영<sup>遊泳</sup>하는 대화>

## 한국적 정서와 미를 통해 소통하는 공간

글 이수정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고혜숙, landscape, 2024, 32x120x9cm, Stainless Steel, Candy Coloring

성남큐브미술관은 성남에서 활동하는 청년 및 중장년 작가들을 대상으로 다각도의 지원을 통한 예술 생태계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우수 작가를 소개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시를 기획해 오고 있다. 성남작가조명전은 작가 개인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기 위한 자리로, 이달에는 그 네 번째 전시인 고혜숙 작가의 <공간을 유영<sup>遊泳</sup>하는 대화>를 선보인다.

<공간을 유영<sup>遊泳</sup>하는 대화>에서는 고혜숙 작가의 40여 년 작업의 여정을 보여 주고자 한다. 작가는 표현 방법, 재료 등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여 왔다. 비가시적 존재, 형태의 자연성과 불완전성, 여백의 존재성, 관계성 등 다양한 주제 속에서 작가는 일관성 있게 형상에 얽매이지 않는 추상적 조형성을 추구하며,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와 '하나의 견고한 미의식'을 작품에 투영해 왔다. 이번 전시는 평면 작업부터 설치 작업까지 유기적으로 구성된다. <In between> 작품은 간결한 표현과 짙은 브라운 계통의 모노톤 코르텐 강<sup>cor-</sup>

ten steel 재료 본질을 통해 자연을 은유하며, 시간의 축적을 형상화한다. 근작 <landscape>에서는 한국적 풍경을 조형적 언어로 면의 분할과 조합을 통해 현대적인 산수화를 표현했다. 또한 90년대부터 진행해 온 평면과 입체의 결합, 석고판 위의 스크래치 드로잉에 이어 에칭을 가미한 <흐름-길> 작품도 다시 만날 수 있다.

고혜숙 작가는 '시적인 조각가'로 불리는 만큼, 작품은 시처럼 간결한 선 안에 깊이 있는 사유와 목상이 담겨 있고, 묵직한 울림을 전달한다. 간결한 표현 속에는 작가의 정신과 정서가 자유롭게 표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작품은 시적인 표현과 조각적 형태가 결합하여 깊이 있는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버려진 자투리 천이라도 조형적 아름다움을 구상하듯이, 대립이 아닌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고, 상생의 관계로 변화하고자 한다. 조각이 표출할 수 있는 힘이란, 깊이 있는 숙고, 부분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됨을 보여 주고자 한다."

- 고혜숙, 작가 노트 중에서

우리는 모두 관계의 맥락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작가가 말하는 나와 타인, 자연과 도시, 전통과 현대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얽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색한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고혜숙 작가의 작업은 단순히 형

태와 색채, 재료의 조합을 넘어서, 한국적 미를 재해석하고, 조형적 분할과 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이번 전시는 그 관계성을 통해 존재의 다양성을 탐색하며, 우리가 함께 걷는 시간과 공간의 풍경을 새롭게 감상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고혜숙, In Between, 2024, 43.6x72x181cm, Cor-ten Steel

**<고혜숙: 공간을 유영<sup>遊泳</sup>하는 대화>**

일시 | 8월 30일(금)~10월 20일(일)

장소 |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문의 | 031-783-8142-9

PRE  
VIEW

마티네 콘서트: 8월 '보헤미아에서 들려온 노래'

체코 음악의 걸작과  
숨은 보석들

글 양창섭 음악 칼럼니스트



© 최재우

피아니스트 김태형

MATINÉE CONCERT



소프라노 황수미

성남아트센터의 마티네 콘서트는 올 한 해 체코의 음악들을 두루 살피면서 널리 알려진 걸작과 숨겨진 보석 같은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오는 8월 22일 공연에서는 전체 시리즈의 해설자 역할을 맡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건반 앞에 앉고, 곱고 품위 있는 목소리와 음악성으로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는 소프라노 황수미가 체코의 성악곡과 피아노곡을 들려준다.

첫 곡들은 보헤미아 지역에서 성장한 초기 고전주의 시기 작곡가 글루크의 오페라 <파리스와 헬레나> 중에서 파리스의 아리아 두 곡이다. 헬레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그녀가 걷던 바닷가와 얼굴을 비춰 보던 시냇물을 예찬하는 내용인데 차분한 아름다움이 일품이다.

이어지는 곡은 드보르자크의 <집시의 노래>다. 그는 교향곡이나 첼로 협주곡 같은 대편성 음악 외에도 상당수의 성악곡과 피아노곡을 작곡했고 이번이 그 대표작들을 소개한다. 당시 빈 궁정 오페라의 테너가 위촉해 작곡한 <집시의 노래>는 모르데라도 그 네 번째 곡인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는 어지간한 음악 애호가라면 알 것이다. 단순히 집시 음악을 흉내 냈다기보다는 집시가 상징하는 자유, 속박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를 통해 제국의 변방인 보헤미아의 자유를 표상하고 있다. 황수미의 마지막 노래는 드보르자크 오페라 <루살카> 중 '달에게 보내는 노래'다. 물의 요정 루살카가 인간인 왕자와 사랑에 빠져 달에게 그 마음을 고백하는 이 노래는 체코어를 모르더라도 반할 수밖에 없다.

후반부는 피아니스트 김태형의 독무대다. 첫 곡은 세상이 뒤늦게 진가를 알아본 작곡가, 변방에

서 일찌감치 현대성을 선취한 야나체크의 <안개 속에서>(전 4악장)다. 제멋처럼 모호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화성과 선율은 드뷔시와는 또 다른 인상주의라고 해도 좋겠다. 김태형은 마지막 음악으로 드보르자크의 가장 중요한 피아노 독주곡인 <회화적 서정시>를 골랐다. 13곡 중 5곡을 연주하는데, 그중 1악장 '황혼의 길'은 전반부에 연주하게 되며 나머지 4개 악장을 후반부에 연주한다. '고성에서' '고블린의 춤' 등 제멋처럼 분위기도, 템포도, 리듬도 제각각이지만 귀에 착감기는 음악을 만들어 낸 드보르자크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다.

언제나 내실 있는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여 온 마티네 콘서트이지만, 이번 공연은 단 두 명의 정상급 음악가가 만들어 내는 색다른 무대이기에 더욱 기대를 모은다. 두 연주자의 음악을 들어 본 적 없는 이들이라면 놓치지 마시기를!

**마티네 콘서트: 8월 '보헤미아에서 들려온 노래'**

일시 | 8월 22일(목) 오전 11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 031-783-8000

PRE  
VIEW

수아레 콘서트 - 김태우와 하고 싶은 말

## 여름밤엔 불명 대신 '라이브명'!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 사진 최재우



수아레 콘서트가 돌아왔다. 평일 저녁 퇴근 후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랑받았던 성남아트센터의 수아레 콘서트가 2024년 여름, 그룹 지오디의 명품 보컬 김태우와 함께 특별한 '음악 캠핑'을 선사한다. 여름밤 열대야를 피할 음악의 힐링 캠프, 유쾌한 토크와 귀호강 라이브가 어우러진 무대로 불명 대신 라이브명을 즐겨 보는 것은 어떨까.

올해 수아레 콘서트를 이끌어 갈 호스트는 '보컬의 신' 김태우. 국민 그룹 지오디의 메인 보컬이자, 국내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남성 보컬리스트로 여전한 전성기를 구가하는 주인공이다. 가창력으로 손꼽히는 가요계의 명품 보컬들 그리고 김태우의 라이브 무대와 토크로 꾸며지는 '수아레 콘서트 - 김태우와 하고 싶은 말'은 지난 7월 19일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8월 28일 두 번째 공연을 선보인다. '여름밤의 힐링 캠핑'을 콘셉트로 한 공연답게, 오페라하우스 앞 광장에 텐트와 캠핑 의자, 감성 가득한 알전구 조명 등 아기자기한 공간을 꾸며 관객들이 도심 속 캠핑을 즐기는 듯한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

7월 19일 첫 공연에서는 보컬 그룹 노을, 그룹 2AM과 뮤지컬 배우로 활약 중인 조권이 자리를 빛냈다. 노을은 '인연' '청혼' '함께' 등의 대표곡을, 조권은 '이 노래' '친구의 고백' '죽어도 못 보내' 등 2AM의 명곡을 라이브 밴드와 함께 짝 찬 보컬로 소화했다. 특히 야외 공간뿐 아니라 무대 한쪽에도 캠핑 공간이 꾸며져 힐링 캠핑의 무드를 안팎으로 이어 갔는데, 이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라이브 랜덤박스' 코너가 재미를 더했다. 노을 멤버들이 '나의 최애 드라이브송' '내가 생각하는 노을의 대표곡은?' 등 랜덤박스에서 직접 뽑은 질문지에 맞춰 저마다 짙막한 라이브를 들려주었고,

무대 중간중간 호스트 김태우와 출연진의 유쾌한 토크에 객석의 뜨거운 호응이 더해졌다. 김태우와 조권이 공연 전 관객들이 공연장 로비 메시지에 적은 사연들을 함께 읽고 작은 선물을 증정하는 깜짝 이벤트도 훈훈함을 더했다. 게스트들의 무대 이후 무르익은 분위기 속에, 호스트 김태우 역시 'Lonely Funk' '널 닮으리' '사랑비' '하고 싶은 말' 등 히트곡을 '미친' 성량으로 노래하며 관객에 화답했다.

'수아레 콘서트 - 김태우와 하고 싶은 말'은 8월 28일 또 한 번의 만남을 앞두고 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출신으로 호소력 가득한 가창력의 R&B 보컬 환희, 편안하면서도 트렌디한 음악으로 사랑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조지가 음악으로 가득한 여름밤을 선물한다. 여름의 끝, 수아레 콘서트가 준비한 특별한 음악 캠핑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수아레 콘서트 - 김태우와 하고 싶은 말**  
일시 | 8월 28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 031-783-8000



PRE  
VIEW

유키 구라모토 25주년 기념 콘서트 'Gentle Mind'

부드럽게, 다정하게  
마음이 듣는 음악

글 류진현 음악 칼럼니스트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내 음악 애호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8월 31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을 찾는다. 올해 발표한 새 앨범인 <Gentle Mind>를 타이틀로 한 이번 공연에서 그는 피아노 솔로와 함께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로맨틱하고 따뜻한 피아노 연주로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 온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그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로 인정받아 왔다. 부드러우면서도 마음을 흔드는 그의 음악들은 김지운 감독, 이병헌 주연의 영화 <달콤한 인생>, 윤손하가 출연한 NHK 드라마 <한 번 더 키스를> 등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광고 음악 등에도 사용되며 국내외의 음악 애호가들에게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여섯 살의 나이로 피아노를 시작한 유키 구라모토는 도쿄공업대학에서 응용물리학을 전공한 이력과는 별개로 클래식, 재즈, 뉴에이지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피아노로 연주하며 음악에 대한 애정을 이어 갔다. 이후 1986년에 서정적인 오리지널 피아노곡들을 담은 앨범 <Lake Misty Blue>로 데뷔, 지금까지 40장 이상의 앨

범을 발표하며 음악가로서의 인생을 걷게 된다. 1998년 자신을 대표하는 명곡인 'Lake Louise'가 수록된 피아노 솔로 앨범 <Reminiscence>로 한국 데뷔를 알린 이후에는 <Romance> <Refinement> <Misty Lake Louise> 등 기분 좋고 편안한 음악 세계를 담은 히트작들을 발표해 왔으며, 최근에도 <Reminiscence II> <Dear Heart> 등 신작을 통해 멈추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구라모토는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9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된 첫 내한 공연이 매진을 기록한 이후, 매년 서울 공연은 꾸준히 전석 매진으로 사랑받으며 화제가 되었다. 내한 공연 25주년을 기념하는 유키 구라모토의 2024년 공연 타이틀은 'Gentle Mind'. 2009년 앨범 <Piano Affection>의 수록곡 'Everlasting Gentle

Thought'와 'Everyone's Gentle Mind' 등 기존 작품과 신곡을 담은 새 앨범 <Gentle Mind>를 타이틀로 삼아, 지금까지 만들어 온 아름다운 곡들을 전하는 자리이다. 'Lake Louise' 'Romance' 'Meditation' 등 국내에서도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히트곡들, 새 앨범 <Gentle Mind>의 신곡들을 피아노 솔로와 바이올린 듀오,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다양한 스타일로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디토 오케스트라 협연에서는 자신의 모든 곡을 작곡 겸 편곡하는 구라모토가 직

접 오케스트라 편곡을 맡아, 특별하게 만들어 낸 풍성한 선율의 연주를 만날 수 있다. 편안하지만 강력한 힘을 지닌 구라모토의 피아노와 섬세한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완벽한 하모니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다정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주는 위안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이다.

유키 구라모토 25주년 기념 콘서트 'Gentle Mind'  
일시 | 8월 31일(토) 오후 5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 031-783-8000

K u r a m o t o  
i y y n A

PRE  
VIEW

비르투오소들의 조우

## 명연주자들의 다채로움

글 정소연 월간 &lt;스트라드&gt; 수석기자

‘고도의 기교를 보여 주는’이라는 의미의 ‘비르투오소<sup>virtuoso</sup>’는 보통 연주자들을 수식할 때와 더불어 ‘명연주자’ ‘거장’들을 표현할 때에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8월 28일, 성남아트리움에서 열리는 <비르투오소들의 조우>는 타이틀에서 이 공연이 전개될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 준다.

피아니스트 양성원(이화여대·건국대 겸임교수)과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서울대 교수) 그리고 첼리스트 송영훈(KBS 클래식FM ‘송영훈의 가정음악’ 진행)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이 공연은 먼저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으로 청중의 흥미를 돋운다. 또한 세 연주자가 연주할 작품들 면면들을 보면 이 무대가 ‘비르투오소’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르투오소는 기교적으로 뛰어난 연주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명사로서 명연주자, 거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명연주자, 거장은 단순히 테크닉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피아니스트 양성원이 연주할 쇼팽 <녹턴 20번 C<sup>♯</sup>단조, Op. 10 No. 21>나 슈베르트 <즉흥곡 3번 G<sup>♯</sup>장조, Op. 90 No. 3> 그리

고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함께하는 크라이슬러 ‘사랑의 슬픔’과 마스네 ‘타이스의 명상곡’ 등은 우리가 흔히 아는 화려한 비르투오소의 작품은 아니다. 이 음악회는 음악적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곡들을 통해 진정한 비르투오소, 즉 명연주



피아니스트 양성원

## 비르투오소들의 조우

일시 | 8월 28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문의 | 031-783-8000

자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연주를 완성시킨다. 송영훈과 양성원이 연주할 슈만의 <환상 소곡집, Op. 73>은 원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곡이지만, 작곡가 자신이 바이올린·비올라·첼로 등의 현악기로도 연주할 수 있도록 작곡했다. 총 세 곡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빠르기말로 악장을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섬세하게 감정을 담아 Zart unt mit Ausdruck’ ‘생기 있게, 가볍게 Lebhaft, Leicht’ ‘서둘러, 정열을 담아서 Rasch und Mit Feuer’라는 형용사로 곡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작곡가의 의도는 분명하지만, ‘생기 있게, 가볍게, 정열을 담아서’라는 표현의 범위는 사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창작자의 의도만큼이나 연주자의 해석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슈만의 곡을 연주하는 양성원과 송영훈, 두 비르투오소의 조화가 기대될 수

밖에 없다.

베토벤의 피아노 삼중주 5번 ‘유령’은 연주자들의 조화로움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두 현악기가 함께 연주되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연주를 드러내면서도 상대방의 색깔을 해치지 않게 음악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음색이 완전히 다른 피아노는 두 현악기와 완전히 어우러지는 음색을 선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르투오소들의 조우>에서는 이렇게 양성원·김다미·송영훈 세 연주자들이 펼치는 명연주자다운 면모를 다양한 음악을 통해서 접할 수 있다. 단순히 테크닉의 완성도가 아닌 음악적 깊이, 독창적 표현으로 완성한 세 ‘비르투오소’들의 음악이 관객에게 새로운 청각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첼리스트 송영훈

PRE  
VIEW

클라라 주미 강 바이올린 리사이틀

## 주미 강의 '인생곡'을 만나다

글 황진규 음악 칼럼니스트

C l a r a  
J u m i  
K a n g**클라라 주미 강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시 | 9월 7일(토) 오후 5시

장소 |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문의 | 031-783-8000

© Marco Borggreve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하 주미 강)이 9월 7일 성남아트리움에서 독주회를 가진다. 이번 공연은 클라라 주미 강이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살아온 삶에서 특히 큰 의미를 지니는 곡 위주로 프로그램을 꾸려 특히 눈길을 끈다.

1부는 클라라 주미 강의 어린 시절에 큰 영향을 준 작품 두 개로 꾸며진다. 첫 곡은 주세페 타르티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4번으로, '악마의 트릴'이라는 별명으로 더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작곡가가 꿈속에서 악마에게 영혼을 판 대가로 들은 연주에서 영감을 받아 썼다는 일화에서 이 별명이 생겼다. 클라라 주미 강이 4~5세 무렵에 처음 연주했던 곡이기도 하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F단조, Op. 80>은 주미 강이 8세 무렵에 접하고 큰 충격을 받은 작품이다. 타르티니의 소나타와는 '트릴(두 음을 교대로 빠르게 떨듯이 소리 내는 주법)'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된다. 타르티니의 곡 피날레는 트릴과 고난도의 기교가 난무하는 악장이며, 프로코피예프의 소나타 1악장은 트릴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르티니의 화려한 트릴과는 다르게 프로코피예프의 트릴

은 음산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강조한다. 이 곡이 1938~46년에 작곡되었고 그 대부분은 제2차 세계 대전 기간이었음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미 강은 왜 이 곡을 골랐을까? "소나타 1번은 프로코피예프가 제2차 세계 대전 때 작곡한 곡인데 요즘의 현실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마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

해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일깨우려 한 듯하다.

2부 순서는 사제시간으로 엮인 두 프랑스 작곡가의 작품을 다룬다. 에르네스트 쇼송은 자전적 사고로 44세에 불행하게 세상을 뜨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작품을 남겼을 작곡가이다. 친구이자 거장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외젠 이자이의 권유를 받아 쓴 <시곡>은 환상적인 느낌이 가득한 걸작이다. 주미 강이 무척 즐겨 연주하는 곡이기도 하다. 이날 공연의 마지막은 쇼송의 스승이었던 세자르 프랑크가 쓴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FWV8>가 장식한다. 이 곡은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등장한 여러 걸작 바이올린 소나타 가운데 단연 선두를 차지하는 작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척 사랑받는 곡으로, 주미 강은 국내 관객들에게 감사하는 뜻에서 이 곡을 연주하고 싶다고 밝혔다.

주미 강은 지난해 여름부터 1702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튜니스'로 연주하고 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 바이올린은 "세공하기 전 다이아 원석 같은, 남성적인 느낌을 준다"고 한다. 주미 강이 이 바이올린으로 늦여름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줄 연주를 들려주길 기대한다.

PREVIEW

연극 &lt;의자 고치는 여인&gt;

## 짧은 이야기가 남기는 긴 여운

글 김주연 연극 평론가 | 사진 제공 극단 물결

올가을 성남아트리움 무대에 극단 물결의 연극 <의자 고치는 여인>이 찾아온다. 모파상의 단편 소설을 바탕으로 삼아 고전 텍스트가 가진 아름다움과 깊이를 배우의 말과 움직임으로 통해 세련되고 감각적인 무대 언어로 치환한 작품으로, 시청각적인 즐거움과 함께 사랑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남기는 공연이다.

프랑스 작가 기 드 모파상은 평생 동안 300여 편의 단편 소설을 남겼다. <목걸이> <비벳덩어리>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의 단편들은 건조한 톤으로 삶의 단면을 들추거나 잔인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짙은 이야기들이지만, 책장을 덮은 뒤 계속 생각나고 고민하게 만드는 힘을 지녔다. <의자 고치는 여인>도 마찬가지이다. 한 남자를 55년이나 쫓아다니면서 일방적이고도 헌신



적인 사랑을 바친 어느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특히 '의자'라는 오브제는 이 작품에는 가슴 시린 로맨스도, 뜻밖의 반전도 없지만 다 읽고 나면 이 여인의 삶에 사랑은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 하는 의문과 질문이 오랫동안 머릿속을 맴돈다.

송현옥 연출이 이끄는 극단 물결의 연극 <의자 고치는 여인>은 바로 이런 모파상의 묵직한 질문과 긴 여운을 무대 위로 끌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관객과 만나는 작품이다. 극 중 의자 고치는 여인의 사랑을 놓고 벌어지는 배우들의 논쟁은 무대를 넘어 관객석까지 이어지면서 극장을 사유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는다. 무대와 객석을 연결하는 직접적인 토론 형식을 활용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도 흥미롭지만, 무엇보다도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문학·연극·무용·음악·미술·영상 등 다양한 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총체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극단 물결이 꾸준히 추구해 온 공연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특히 '의자'라는 오브제의 다채로운 활용과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 내는 배우들의 신체 움직임이 어우러져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은유와 상징이 풍부한 그림 같은 무대를 빚어내었다.

<의자 고치는 여인>은 201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에서 올해의 신작으로 첫 무대를 선보인 이후, 관객과 평단의 호평 속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과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중소규모 콘텐츠 지원에 선정되면서 이번에 성남 무대에도 오르게 되었다. 짙은 이야기를 통해 길고 진한 여운을 남기는 모파상의 매력을 눈과 귀를 사로잡는 시청각적인 즐거움과 함께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 연극 &lt;의자 고치는 여인&gt;

일시 | 9월 13일(금) 오후 7시, 14일(토) 오후 2시·6시  
장소 |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문의 | 031-783-8000

R  
E  
V  
I  
E  
W

보티스 세바 &amp; 파 프롬 더 놀 &lt;블랙독&gt;

## 힙합의 예술적 가능성을 발견하다

글 심정민 무용 평론가·비평사학자, 한국춤평론가회 회장 | 사진 최재우

힙합 댄스 시어터 <블랙독BLKDOG>은 2018년 런던의 세계적인 무용 극장 새들러스 웰스의 20주년 기념 위촉공연으로 제작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의 성공은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올리비에상의 '최우수 뉴 댄스 프로덕션' 부문 수상<sup>2019</sup>으로 증명되었으며, 세계 예술 축제인 애들레이드 페스티벌<sup>2021</sup>에서 '춤의 미래에 관심이 있다면 꼭 봐야 할 공연'이라는 찬사로도 확인되었다.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블랙독>이 지난 6월 22일과 23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국내 초연되었다.

### 힙합 문화 속 힙합 댄스

힙합은 원래 미국 도시의 소외된 흑인들로부터 시작된 음악이자 춤, 낙서이며 또한 패션이지만, 현재는 인종, 국적, 민족을 초월해 전 세계 젊은이들을 매료시키는 문화로 부상했다. 힙합에서 'hip'이란 말 그대로 엉덩이를 뜻하며 1960년대의 히피를 표현하는 형용사이기도 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최신 유행 사상이나 스타일에 정통한 신세대란 의미도 지닌다. 한편 'hop'이란 미국의 흑인이 엉덩이를 경쾌하게 흔들면서 걷는 모습을 표현하는 동사이자, 1950년대 로큰롤이 생겨난 이후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댄스 파티 혹은 그곳에서 추는 춤을 말하기도 하는데 1960년대에는 '변칙적으로 추는 춤'을 뜻하는 속어로 쓰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힙합은 철저하게 젊은 대중의 성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탄생했음을 알 수 있다.

힙합 문화에서 가장 큰 이념은 자유이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자유, 아무런 제약 없이 생각을 표현하는 자유, 어떤 정형화된 틀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다. 힙합 문화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힙합 댄스 역시 정형화된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로운 춤으로서 젊은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힙합 댄스는 진화를 거듭해 현재에 이르렀는데, 무대 예술화된 형태로 만들어진 힙합 댄스 시어터 <블랙독>이 그 사례 중 하나이다. 여기서 '힙합 댄스 시어터hiphop dance theater'는 힙합을 중심으로 해 극적인 전개를 가진 공연에 예술화된 춤을 의미한다.

### 거친 세상에 맞서는, 가장 감각적인 춤적 기록

안무 및 연출을 맡은 보티스 세바Botis Seva는 1991년 영국 런던 출생으로 힙합·신체극·현대 무용 등 다양한 춤 영역을 넘나드는 활동으로 이름을 알려 갔으며, 점차 영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힙합 춤 공연의 선두 주자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그의 창작 범주는 상당히 넓은 편으로, 다양한 춤을 비롯해서 연극적 요소, 영상, 텍스트, 디지털 매체 등에 이른다. 이러한 방법론으로 사회적 변혁과 자전적 경험에 근간한 창작을 지향하는데, <블랙독>은 그 대표작 중 하나다. <블랙독>은 세바가 어린 시절 흑인으로서 겪은 차별과 억압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청년들이 절망과 두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트라우마와 슬픔, 우울증과 상실의 시간을 겪어 온 모두를 위한 창작인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영혼들이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에 대처하는 자세에 관한 정서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춤적 기록이기도 하다. 초연 이후에도 그렌펠 타워 화재, 코로나19 팬데믹, 흑인 인권 운동 등 사회적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며 진화를 거듭해 온 <블랙독>은 특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의 여정과 성찰의 순간을 춤 형상으로 펼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저마다의 투쟁과 용서, 극복의 이야기

성남아트센터 무대에서 확인한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힙합 특유의 즉흥성, 기능성, 현장성에 기대지 않은 채 묵직한 주제 이미지와 뉘앙스를 둘 수 있도록 통제되고 자제되어 있었다. 배틀 형식의 에너지 넘치는 기교의 향연을 기대한 관객에게는 다소 익숙지 않을 수 있으나 무대예술로서의 춤 창작에서는 당연시된다. 이러한 움직임들 통해, 족쇄처럼 따라다니는 유년기의 아픈 기억과 성인기의 트라우마가 자아 파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만의 저항, 투쟁, 용서, 극복, 평화의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함을 내비치고 있다. 종장에 이르러 의자 위에서 한 남자가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에서는 송고한 존재마저 떠올리게 한다. 여기에 리드미컬한 비트에 심박동이나 진동을 혹은 육성(내레이션)을 융해한 소리, 어두운 톤 속에서도 내면의 복잡미묘한 감정의 추이를 예

리하면서도 감각적으로 반영하는 빛, 젊은 영혼의 자유로움과 안정감 추구를 상징하는 후드 누빔 옷이 어우러져 춤적 형상화를 한껏 돋운다. 이는 작곡 톨벤 실베스트Torben Sylvest, 조명 톰 비서Tom Visser, 의상 도슨 라이트Ryan Dawson-Laight의 협업으로 완성되었다. 배틀 형식에서 벗어나 공연예술화된 힙합 춤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블랙독>은 힙합 댄스의 현란한 기교를 기대했던 관객들에게는 아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힙합 댄스의 진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블랙독>은 진지하다 못해 어두운 주제 의식에 대한 그만의 안무 및 연출로 무대예술화된 면모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해당 춤 영역에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채로운 동작 개발과 구성적 짜임새에 관해서는 발전의 여지를 남겨 두었으나, 안무가로서 매우 젊은 나이인 서른셋이라는 점에서 예술적 성장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다.

힙합 댄스 시어터 <블랙독>  
일시 | 6월 22일(토)~23일(일)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B  
L  
A  
C  
K  
D  
O  
G



성남문화재단×영국 왕립예술대학

‘도시를 다시 상상하다’

## 기억하고, 상상하고, 함께하기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 사진 최재우

우리가 사는 도시, 혹은 꿈꾸는 도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6세 어린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오늘의 성남을 살아가는 98명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상상을 특별한 예술 작품으로 빚어냈다. 성남문화재단과 영국 왕립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 이하 RCA)이 공동 기획하고 개최한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 ‘도시를 다시 상상하다(Re-Imagining the City)’ 워크숍과 결과물 전시 현장 속에서, 특별한 화합과 소통의 기록을 되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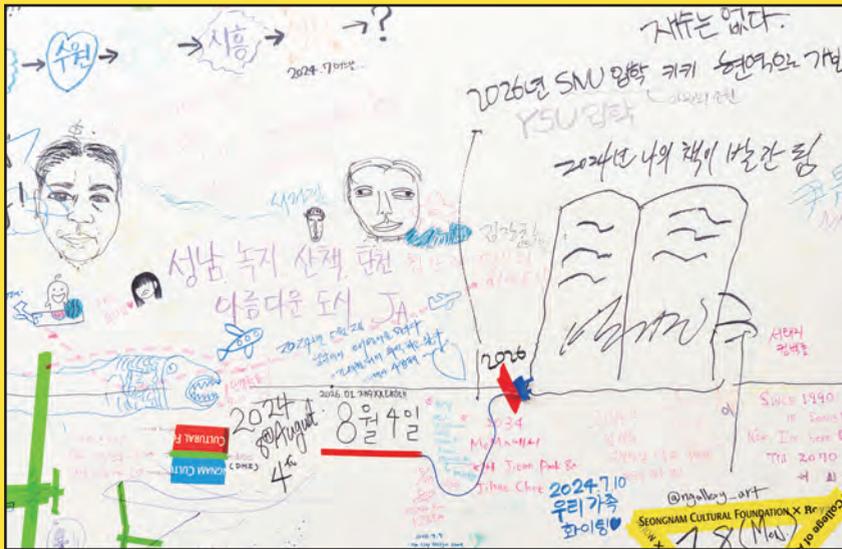
↑ 프로젝트 결과물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전시가 7월 8일~8월 4일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었다

## Re-Imagining the City

### #1

워크숍 참여 공모를 통해 선발된 참가자들. 미취학 아동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도시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이야기할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이 모였다. 7월 1일부터 진행된 5일간의 워크숍에서는 RCA 교수진의 강의를 바탕으로 세대가 협업하는 예술 활동이 이어졌다.





#2

도시는 우리 모두의 기억으로 이루어진다.

처음 자취를 시작한 날, 성남에 처음 이사 온 날,

전 직장 생활과 이별한 날.

벽면을 채운 저마다의 타임라인은 개인의 순간이자 도시의 역사가 된다.



“골판지라는 다양성을 지닌 소재로 새롭게 무언가를 건축하고 재개발하면서, 우리만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5일이었어요. 평면을 다루는 회화 전공이다 보니 작품의 양면과 뒷면,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부족했는데, “한 부분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전체를 보라”는 지역 예술가님들과 게리 교수님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세대들과의 만남과 소통도 기억에 남아요. 덕분에 함께 작업한 현대 아버님, 한영숙 작가님과의 즐겁게 협업하며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김가빈, 가천대학교 회화과 4학년



#3

누군가에게는 그저 택배 박스에 불과했던 평범한 골판지도 훌륭한 작업 재료가 된다. 참여자들은 성남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탐구하고 다양한 추억을 공유하며 '성남과 나 사이'의 의미 있는 연결점을 찾아보는 한편, 도시의 더 나은 미래를 골라주와 다양한 설치 작품으로 표현했다.



© 이승희



© 이승희

#4

6~7세 반 워크숍 아이스 브레이킹 현장. 각자 좋아하는 노래나 음식, 오늘 아침 먹은 것 등을 얘기해 본다. “오늘은 스파게티를 먹었어요!” 참가 어린이의 말에 즉석에서 스파게티를 그려 주는 게리 교수의 손끝에 어린이들의 호기심 가득한 시선이 집중된다.

“골판지 위에 잡지랑 신문 오려 붙이고, 이걸로 대학생 언니 오빠와 함께 ‘성’을 만들었어요. 언니 오빠들이 꽃이랑 성벽 옆 계단 만드는 법도 알려 줬는데, 모양이 꽤 예쁘죠? 골판지, 테이프, 잡지, 끈. 실, 수수깡처럼 성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재료들의 활용도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학교에선 이런 작업을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뭐든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친구들과 참여하고 싶어요!”

- 송지우(서현초 5), 송지안(서현초 4), 유다연(중탑초 4)

#5

워크숍을 진행한 RCA 게리 클라우 Gary Clough 학과장과 손경화 교수는 성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세심한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성남시민을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했다. 워크숍 현장에서는 교수진과 더불어 RCA의 한국인 졸업생들이 조력자로 함께하며 시민 참가자들의 작업을 도왔다.

“오늘 어린이 워크숍에서는 ‘우리가 살고 싶은 드림하우스 만들기’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형태의 집을 만들었는데, 모두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훌륭한 작업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도시, 멋진 판타지를 보여 준 작품입니다. 특히 서로 다른 세대와 대화를 나누며 함께 작품을 만들어 갔다는 것이 중요해요. 4일 동안 다양한 세대와 협업하며 좋은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간 대학생 여러분의 역할도 대단했습니다.” - 어린이 워크숍 후, 게리 클라우 교수





“개인화된 공간에서 소통 없이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예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함께한 학생들이 예술을 전공한 친구들이라 작가로서 제가 걸어온 경험과 조언을 나누기도 하고, 세대 간에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죠. 이 공간에서 우리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저마다의 삶이 어떤 상자 속을 벗어나 미술관으로 옮겨 왔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가 관객에게 하나의 ‘어울림’으로 다가갔으면 해요.”

- 한영숙, 60대, 성남시, 다중매체 아티스트



“30년 넘게 성남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빠 제가 사는 곳에 큰 의미를 두진 않았는데, ‘도시를 다시 상상하다’라는 워크숍 주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를 위해 1년 가까이 준비한 재단의 노력에 신뢰도 가고, 시민으로서 자부심과 참여 의식도 갖게 되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사는 곳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는 기회, 또 세대를 아우르며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연결의 장’이 마련되어 즐겁고 고맙습니다.”

- 최익준, 60대, 성남시, 전 글로벌 기업 CEO



### 이럴 땐 이런 앱

작가 이계진

### 영화 속 클래식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벨리니의 <노르마>

### 트렌드 1

아트 마케팅의 새로운 전략과 과제

### 트렌드 2

AI 시대 영상 산업의 가능성

### 생활 속 디자인

침대와 의자에 대하여

# CULTURE +

작가 이계진

# What's in my phone?

누구보다도 섬세한 감각과 영감으로 가득한 예술가들, 그들의 스마트폰 안에는 어떤 앱이 자리하고 있을까? 8월 18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2024 성남작가조명전 <이계진: 우연한 삶>의 주인공, 이계진 작가의 최애 앱을 소개한다.



글 이계진

서울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소금과 먹을 이용한 '소금산수' 시리즈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 현재 8월 18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2024 성남작가조명전 3 <이계진: 우연한 삶>에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

▶ '삼성 노트' 앱에 담긴 이계진 작가의 드로잉

저는 2년마다 핸드폰을 가장 큰 용량으로 업데이트해요. 지난해 갤럭시노트에서 갤럭시 Z Flip 5로 바꾼 이유도 용량 때문이었는데요, 핸드폰 카메라가 발달하다 보니 용량은 클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작업 특성상 일상과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이미지화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핸드폰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아서 일반 카메라 대신 폰 사진을 인화하거나 그대로 보고 그리곤 해요.

**갤러리: Simple is the Best**

기본 앱 중 하나인 갤러리에는 저만의 시선과 구도로 찍은 사진과 이미지들이 가득해요. "모든 자연 경물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뜻의 '합기심묵' 咸紀



스타에 따라 멋진 경관을 마음의 눈으로 담을 수도 있지만, 기억하고 싶은 광경은 꼭 사진을 찍는 편입니다. 이렇게 느낀 바들을 갤러리에 두고 살펴보다 보면 작품에 큰 영감이 되어 주고, 나중에 작업하기도 편리하죠.

**삼성노트: 노트 테이킹 & 스케치**

갤럭시 기본 메뉴 'Samsung Note'도 즐겨 사용합니다. 타이핑 필기는 물론이고 연필, 볼펜, 붓 등으로 스케치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죠. 다른 유료 앱도 많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좋아해서 이 앱을 애용하고 있어요.

**아트허브: 미술 정보 수집**

전시 정보와 레지던시 공모, 아트잡 등을 볼 수 있는 미술 정보 플랫폼입니다. 즐겨 찾는 메뉴는 '공모 & 모집'과 '현재 전시'인데, 성남아트센터 전시 공모도 여기서 발견해 지원할 수 있었어요. 궁금했던 작가의 전시 정보가 '현재 전시' 메뉴에 뜨면 기억해 뒀다 방문하기도 하죠. 작가라면 그림 작업만큼 관련 정보 수집도 매우 중요한데, 아트허브에서 그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어 추천합니다.

**네이버사전: 글과 그림의 근원은 같다**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사전을 더 자주 활용하고 있어요. 상형 문자인 한자의 특성 때문인지 단어를 검색하려면 획 하나하나를 거의 그리는 느낌으로 써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네이버 사전은 매우 유용합니다! 특정 한자의 뜻이나 병음을 몰 때 앱을 열고 한자를 그대로 그리면 해당 단어를 검색할 수 있거든요. 동양화 화론을 공부하던 시절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글과 그림의 근원은 같다"는 서화동원 書畫同源이었는데 한자와 중국어를 배우며 이 말에 더욱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미술 재료를 구할 때에는 인사동의 송지방, 성심필방, 구하산방 등을 방문하거나 화방넷, 호남한지필방, 송정필방, 동남필방 등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요. 다만 시간 여유가 없을 때면 주저 없이 당근마켓을 씁니다. 작업 중 먹이나 아교가 동이나도 바로 작업을 이어 가야 해서, 당근을 켜고 주변을 살펴보죠. 동양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인지 생각보다 많은 재료들이 좋은 상태, 심지어는 새 제품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럴 경우 바로 '득템'이 가능하죠!



##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벨리니의 <노르마> 영웅에게도 구원의 손길은 필요하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sup>2015</sup>  
 감독 조스 웨던  
 출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크리스 헴스워스, 마크 러팔로, 크리스 에반스 외

글 김성현 조선일보 문화전문기자  
 지휘자 사이먼 래틀과 바렌보임의 전기를 번역했고 『365일 유럽 클래식 기행』 『시네마 클래식』 『모차르트』 『씨네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다. 다양한 강연과 해설 무대는 물론, 유튜브 채널 '클래식 톡'을 통해 클래식과 대중의 간극을 줄여 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진 제공 윌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자장가가 평소보다 효과가 좋았네요.”

블랙 위도우(스칼렛 요한슨)가 헐크(마크 러팔로)에게 넌지시 다가와 위로한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사상자가 두 배로 늘고 소중한 친구는 추억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블랙 위도우의 따스한 다독임에도 헐크는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다”라고 답한다. 분노라는 감정이 변신의 동력이라는 점이야말로 헐크의 치명적 약점이다. 이 약점은 급기야 어벤져스 군단 전체의 급소가 되기에 이른다.

2015년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초반 장면이다. 영화는 서울 마포대교와 상암동 일대에서 후반 장면을 촬영해서 개봉 이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물론 실제로 어벤져스 군단이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근사한 할리우드 세트장보다는 혼돈의 아수라장에 가깝겠지만 말이다.

영화에서 헐크가 헤드폰을 쓰고서 듣는 아리아가 ‘정결한 여신Casta diva’이다. 이탈리아 작곡가 빈첸초 벨리니<sup>1801-1835</sup>의 오페라 <노르마> 1막에서 여제사장 노르마가 부르는 노래다. 타고난 선율 작곡가였던 벨리니에 대해 후배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는 “드물게도 귀하고 유려한 멜로디를 지칠 줄 모르는 생산성으로 바람결에 날려 보냈다”고 격찬했다. 벨리니 특유의 서정성 넘치는 선율에만 귀 기울이면 얼핏 헐크를 위로하는 달콤한 노래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S 하지만 오페라에서 침략자인 로마군 사령관과 사랑에 빠져서 두 아이까지 낳은 노르마는 실은 동족애와 연정 사이에서 깊은 고뇌를 겪고 있다. 그렇기에 사제라는 공적 신분으로는 “신이 격노할 때 로마인들은 피를 바쳐야 할 것”이라고 단언하지만, 반대로 여성으로서는 곧바로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그대를 보호해 줄 것이니 돌아와요”라고 간절하게 탄원한다. 영화에서는 전설적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로 흐른다. 칼라스는 평생 80여 차례나 이 오페라를 무대에서 불렀고 2장의 스튜디오 전곡 음반을 남겼다. 이 때문에 20세기에 이 오페라를 되살린 주역으로 꼽힌다.

E 어떤 의미에서 영화의 헐크는 오페라의 비극적 여주인공 노르마와 동병상련의 처지다. 헐크 역시 어벤져스의 일원이지만 ‘알몸뚱이 초록색 괴물’이라는 자기혐오에서 좀처럼 헤어지지 못한다. 천재 물리학자 브루스 배너의 또 다른 자아가 통제 불가능한 괴력의 헐크라는 설정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현대적 변용이기도 하다. 헐크는 배너의 인간적 나약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배너는 헐크의 야만

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이 영화는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같은 초능력 영웅들이 총출동한 마블 영화 시리즈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2012년 전작 <어벤져스>에서 외계 종족이 적이었다면, 이 영화에서는 적대적인 인공 지능<sup>AI</sup>인 울트론과 맞서 싸운다. 영화 초반부는 시와 인류의 대결 구도를 다루는 공상 과학<sup>SF</sup> 영화의 기본 공식을 충실히 따른다. 인류가 창조한 시가 정작 총직한 수호자보다는 진화된 대체자를 꿈꾼다는 설정이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노르마>  
무대에 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장르를 불문하고 좋은 영화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주인공만큼 매력적인 악당이 등장하고, 손쉬운 정답보다는 까다로운 질문을 던질 줄 안다는 점이다. 이 영화 역시 그렇다. 울트론은 창조자인 어벤져스 앞에서 거침없이 묻는다. “너희가 어떻게 고결할 수 있겠어. 모두 살인자들인데.” 전쟁에서 예기치 못했던 민간인들의 희생을 뜻하는 ‘부수적 피해<sup>collateral damage</sup>’는 어벤져스 군단을 괴롭히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어벤져스는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한다. 또한 ‘초능력 영웅도 통제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둘러싼 어벤져스의 내부 분열은 이듬해 후속편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다만 어디서나 편재하는 시가 굳이 육신이라는 거추장스러운 거죽을 걸치려 든다는 설정은 시각적으로 악을 구현해야 하는 장르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다분히 만화적이다. 하긴 악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화끈한 액션물이 아니라 음산한 공포물로 변할지

도 모른다.

돌아보면 어벤져스 시리즈는 흥행과 평단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던 예외적인 경우였다. 이전까지 슈퍼히어로 장르는 영웅들이 홀로 힘겹게 세상을 구원하는 ‘단식 경기’에 가까웠다면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합종연횡의 화려한 ‘복식전’으로 거듭났다. ‘초능력 영웅들의 올스타 팀’이라는 매력, 전편과 후속편을 이어 주는 거대한 서사 구조는 이 시리즈만의 남다른 경쟁력이자 차별점이었다. 이 때문에 ‘마블 유니버스’나 ‘마블 세계관’이라는 말도 유행했다.

서부의 총잡이나 도시의 마피아와 마찬가지로 모든 영화 장르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현시점에서 돌아보면 이 영화는 어벤져스 시리즈가 정점에 도달하기 직전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간직하고 있다. 어벤져스 시리즈는 <인피니티 워><sup>2018</sup>와 <엔드 게임><sup>2019</sup>의 2부작을 통해서 눈부시게 만개한 뒤 급속하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전편과 연결성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차별화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버거워진 것이 사실이다. 시리즈의 매력 자체가 족쇄가 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의 퇴장 이후 이 시리즈는 뚜렷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무한 반복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세상을 거뜬히 구원할 능력을 지니고 있는 초능력 영웅들이 정작 자신들의 앞날은 예견할 수 없다는 점이야말로 모든 슈퍼히어로물의 지독한 역설이다.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는 오로지 칼라스 자신과 싸운다. 칼라스는 1948년 11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노르마>에 처음 출연한 뒤 평생 아흔 번이나 이 오페라를 노래했다. ‘칼라스의 등장으로 <노르마>도 함께 부활한 것’(박종호 풍월당 대표)이었다. 1954년과 1960년 스튜디오 전곡 음반만 두 차례 남겼고 실황 녹음도 있어서, 지금도 칼라스의 결정판을 놓고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1954년 음반은 칼라스의 전성기 시절 목소리를 접할 수 있고, 1960년 음반은 테너 프랑코 코렐리와 메조소프라노 크리스타 루트비히 등 동료 가수들의 캐스팅이 화려하다.

ARTS  
SUMMER

글 서민경 디자인 칼럼니스트  
텍스트 공방 대표. 디자인과 공예 영역에 걸쳐 글을 쓰고 전시를 기획한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디자인과 큐레이팅을 전공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거쳐 월간 <디자인>에서 에디터로 일했다.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반클리프 아펠: 시간, 자연, 사랑>전  
© 최용준, 반클리프 아펠

아트 마케팅의 새로운 전략과 과제

# 아트슈머라는 이름의 소비 주체

아트 마케팅 영역에서 최근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아트슈머'다. 예술<sup>art</sup>과 소비자<sup>consumer</sup>의 합성어인 아트슈머는 소비하는 행위를 통해 미학적 경험과 문화적 만족감을 얻는 이들을 가리킨다. 아트 컬렉터들이 예술품을 두고 취향 소비와 투자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과 달리, 아트슈머는 일상에서 즐기는 '경험'의 대상으로 예술을 바라본다. 요즘 뜨고 있는 아트슈머 트렌드를 자세히 살펴본다.

**넘실대는 아트 컬래버레이션 바람**

지난 2022년 한국에 상륙한 글로벌 아트 페어 '프리즈Frieze'는 국내 아트 신을 새롭게 바꿔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리즈 서울이 열리는 기간에 맞춰 기업과 브랜드는 아티스트 컬래버레이션을 발표하고 갤러리가 밀집한 삼청동과 한남동은 파티로 들썩인다. 더불어 일반 대중들의 예술에 관한 관심도 뜨거워지는 중이다. 같은 해 한국 미술 시장 거래가 사상 처음 1조 시대에 진입했다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발표가 있었다. 이른바 '부자들의 놀이터'로만 여겨지던 미술 시장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젊은 층이 아트 컬렉팅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트 컬렉터의 연령층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예술을 일상 속에서 즐기는 '아트슈머' 또한 아트 마케팅의 주요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1987년 설치미술가 바버라 크루거Barbara Kruger가 자본주의 사회에 던진 'I shop, therefore I am(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메시지는 현대 사회에 들어와 'I experience, therefore I am(나는 경험한다, 고로 존재한다)'으로 치환된다.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아트슈머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해 기업과 브랜드들도 작가와의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나 전시를 기획하는 데 적극적이다.

지난 1월 롤루레몬은 청담동, 이태원에 이은 세 번째 스트리트 스토어로 '명동 타임 워크 스토어'를 오픈했다. 이를 기념해 롤루레몬이 추구하는 '땀 흘리는 삶, '스웨트라이프the sweat life'를 즐기는 사람들을 감각적으로 담은 그래픽 아티스트 오오우oyow의 일러스트 작품을 매장 내에 전시했다. 코오롱FnC가 전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는 2022년 제주에 플래그십스토어 '숏숏리버스'를 오픈하고 지속 가능성을 테마로 한 작가들과의 협업 전시를 이어 오고 있다. 이곳에서 5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개최되는 열한 번째 전시 <머들머들Muddle Muddle>은 오상민 작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전시명에서 첫 번째 '머들Muddle'은 우리말로 '뒤죽박죽'이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머들Muddle'은 돌무더기를 뜻하는 제주도 방언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제주의 돌에서 영감을 받은 작가는 코오롱스포츠의 바람막이와 텐트 부자재를 결합해 조명 작품을 완성했다.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솔의 행보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 2월 청담동 본사 사옥 1~2층을 한솔도시락 직영 점포와 오픈형 아카이브 공간으로 구성한 한솔 청담 플래그십으로 리뉴얼한 데 이어, 지하 1층 공간을 젊은 예술가를 위한 아트 플랫폼 '한솔아트스페이스'로 할애했다. 이곳에서 6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열린 <더



↑ 롤루레몬 '명동 타임 워크 스토어'에 설치된 오오우 작가의 일러스트  
↓ 코오롱 숏숏리버스 제주에서 열리는 <머들머들>전

클로징 서클The Closing Circle>은 지구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관한 메시지를 담은 전시였다. '지구 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이라는 전시 부제에 부합하도록 김지선, 류중대, 이우재, 이혜선 등 11팀 작가들의 80여 점의 친환경 작품을 모아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사례는 기업의 메시지를 아트슈머들에게 간접적으로 발신하는 일종의 아트 마케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 롤루레몬

© 코오롱FnC

**예술에 진심인 기업과 브랜드**

백화점도 전시 영역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양새다. 현대백화점은 '예술로 가득하다'는 의미를 담은 '더 아트풀 현대The Artful Hyundai'를 올해의 아트 마케팅 캐치프레이즈로 정할 정도로 아트슈머들에게 공들이고 있다. 더현대 서울에 위치한 전시 공간 '알트원ALT.1'은 지난 5월 누적 유료 관람객 수가 100만을 넘어섰다. <앤디 워홀: 비기닝 서울> <폼페이 유물전> 등 대중 친화적 전시를 유치해 온 이곳에서는 9월 18일까지 <서양 미술 800년展>이 열린다. 더현대 대구도 2022년 리뉴얼을 통해 전시 공간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면적 1,267m<sup>2</sup> 약 383평에서 5,047m<sup>2</sup> 약 1,530평 규모로 문화·예술 관련 시설 면적을 늘린 것이다. 백화점 9층 전체를 할애한 '더 포럼 by 하이메 아온'은 더현대 대구에 방문했을 때 빼놓지 않고 들러야 할 명소로, 아티스트 하이메 아온Jaime Hayon이 디자인한 카페와 실내광장, 조각 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에 자리한 '더 스퀘어'는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내리며 전 세계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을 근접거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오픈 공간으로, 올해에는 설치 미술 작가 루크 제람Luke Jerram의 '달의 미술관Museum of the Moon'을 설치했다. 고해상도로 달을 촬영한 NASA의 이미지를 50만 분의 1로 축소해 지름 6m 크기로 구현한 이 작품은 은은한 빛을 뿜어내며 우주의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7층에 위치한 롯데뮤지엄은 7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다니엘 아삼: 서울 3024-발굴된 미래>전을 개최하는 중이다. 백화점과 쇼핑몰에서 이처럼 전시 운영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바로 문화·예술 콘텐츠가 아트슈머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고객의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 현대백화점



© 신경섭, 현대백화점

▷ 더현대 대구 '더 스퀘어'에 설치된 루크 제람 작가의 '달의 미술관'

▷ 더현대 대구 '더 포럼 by 하이메 아온'

것이 기정사실임을 고려했을 때 고개가 끄덕여진다.

한편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들도 백화점이나 플래그십 스토어가 아닌 전시라는 통로를 경유해 대중을 만난다. <반클리프 아펠: 시간, 자연, 사랑>전이 성수동 디뮤지엄에서 지난 4월까지 열렸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는 5월부터 두 달간 <까르띠에, 시간의 결정>전이 개최되었다. 지난해에는 불가리 세르펜티 75주년을 기념한 전시가 삼청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기도 했다. 팬데믹 시기에 메타버스가 한창 이슈몰이를 할 때 구찌가 잘파세대Zalpha Generation, 10~20대를 공략하기 위해 제페토와 손을 잡았던 것처럼, 예술을 향유하는 아트슈머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상정하고 전시를 매개로 브랜드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것이 오늘날 럭셔리 브랜드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여러 사례를 살펴봤을 때 아트슈머 트렌드가 낱알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년 내에 쉽게 사그라들 유행이 아닐 듯싶다. 그에 따라 기업과 브랜드도 일회성 전시가 아닌 자신들의 철학에 맞는 아트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불가리 세르펜티 75주년, 그 끝없는 이야기>전 © 불가리, 국제갤러리





## AI 시대 영상 산업의 가능성 48시간 만에 영화 만들기, 이게 되네?

글 라재기 한국일보 영화 전문기자  
1999년 한국일보 입사 후 편집부와 사회부, 국제부 등을 거치며 엔터테인먼트팀장과 문화부장, 신문에디터로 일했다. 2004년부터 영화를 취재해 왔으며, 영국 서식스대 대학원에서 영화학을 공부했다. 저서 '질문하는 영화들', '말을 거는 영화들', 역서 '할리우드 전복자들'로 영화를 사랑하는 독자와 소통하는 한편, 뉴스레터 '영화로운'으로 매주 구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48시간 만에 영화 만들기, 아주 어려운 도전은 아니다. 분업화가 만개했던 20세기 중반 할리우드에서는 이미 하루 만에 영화를 완성한 적이 있으니까. 영화 <피에타><sup>2012</sup> 등으로 유명한 김기덕<sup>1960~2020</sup> 감독이 동료 감독 11명과 함께 장편 영화 <실제상황><sup>2000</sup>의 촬영을 3시간 만에 끝낸 적이 있기도 하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좀 놀라운 일이었다.

디지털 시대에는 어떨까. 스마트폰만으로도 고화질 촬영과 편집이 용이하다. 48시간 만에 '완제품 영화'를 만드는 것은 손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완성도가 문제일 뿐이다.

만약 배우 캐스팅과 시나리오 작업, 촬영, 편집 등을 48시간 만에 딱딱 해내야 한다면? 제아무리 디지털 시대라 해도 머리가 가우뚱해질 만한 일이다. 게다가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오로지 컴퓨터 앞에서 일을 마쳐야 한다면 2~3년 전만 해도 다들 고개를 저었을 테지만 이제는 가능해졌다. 동영상 생성형 인공지능<sup>AI</sup> 프로그램

이 개발됐고 날로 진화하고 있어서다. 시를 활용해 앉은자리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광고를 만드는 일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됐다.

### 부천에서 벌어진 일

지난 7월 4~14일 열린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AI 영화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부대 행사로 열린 'AI 필름 메이킹 워크숍'은 AI 영화의 진화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이자, 참가자들이 48시간 동안 AI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익히며 단편 영화를 만든 간이 '영화학교'였다.

'AI 필름 메이킹 워크숍' 참가 신청자는 600명가량이었다. 영화제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수치에 모집 정원 30명을 60명으로 급히 늘렸다. 시에 대한 영화인과 영화학도들의 열기를 확인한 만큼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참가자들은 16개 팀으로 나뉘었다. 연출·촬영·각본·미술 등 참가자들의 전문성을 고려했다. 한 팀에 감독과 촬영감독, 작가가 고루 포함되게 해 협업을 원활하게 한 조치였다.

워크숍 참가자 중에는 중견 제작자 안영진 (주)영화사 진 대표가 포함됐다. 그는 AI 영화에 부정적이었다. "시를 알아야 비판할 수 있다는 생각"에 워크숍 참가 신청서를 썼다. 하지만 최신 동영상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 '런웨이 G3' 등을 접하고 마음이 180도 바뀌었다. AI 영화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막차' 팀(추가 30명에 포함된 사람들끼리 모였다 해서 지은 이름)에 속했다. 영화제 측이 참가자들에게 제시한 제작 영화 주제는 '환경과 SF'였다. '막차' 팀은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돌연변이 거대 곤충들이 나타나면서 벌어진 일을 떠올렸다. 추운 곳으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북극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를

1. 지난 7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AI 필름 메이킹 워크숍' 현장. 참가자들은 48시간 동안 AI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혀 단편 영화를 만들었다

2. 권한술 감독의 AI 단편 영화 <원 모어 펠린>



타려는 사람들의 사연을 AI 영상으로 표현하려 했다. 영화명은 <설국막차>.

워크숍 첫날에는 각본을 쓰고 배우 '캐스팅'을 했다. 남녀 주인공 두 명은 기존 배우 얼굴에서 착안해 시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었다. AI 배우들이 '연기'할 도시 배경, 배우들을 위협할 곤충 괴수들 역시 시로 생성됐다.

둘째 날은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했다. AI 배우들은 AI 공간에서 AI 괴수들과 뒤엉켜 연기를 했고 '카메라'는 이를 영상에 담아냈다. 즉, 안 대표를 포함한 '막차' 팀원 4명은 자신들이 원하는 영상을 추출하기 위해 AI 프로그램에 명령어를 입력했다. 어떤 명령어를 어떻게 세세히 내렸나에 따라 영상은 각기 다르게 형성됐고 영상의 품질 역시 달랐다.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예를 들어 카메라 움직임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AI 영상은 프로의 솜씨로 빛어졌다.

셋째 날은 AI 프로그램이 만들어 낸 영상을 보정하고 편집하는 시간을 가졌다. 색감의 통일성을 기하고 어색한 이미지를 보완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안영진 대표는 "첫날은 프리프로덕션(촬영 전 준비), 둘째 날은 프로덕션(촬영), 셋째 날은 포스트프로덕션(후반 작업)을 한 꼴"이라며 "일반 영화 제작과 흡사한 과정을 밟았다"고 말했다. <설국막차>의 상영 시간은 2분. 다른 15개 팀이 만든 단편 영화 분량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AI 필름 메이킹 워크숍'에서 단편 영화 16편이 '똑딱' 만들어졌고 영화제 기간 부천아트벙커B39에서 상영됐다.

### 제작비 0원? 영상 산업은 이미 AI 혁명 중

48시간 동안 영화를 만드는 데 든 비용은 사실상 0원이다. 전기료와 프로그램 사용료를 제외하면 들어간 돈은 없다. 단편 영화 한 편을 만들어도 배우를 캐스팅하고 스태프를 꾸려 장비와 소품을 챙기며 촬영하는 데만도 수천만 원이 든다. AI 영화가 보편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하다. 돈이 없어 재능이 묻힐 수 있었던 수많은 인재들이 빛을 제대로 발할 수 있다.

광고라고 다를까, 최근 국내 AI 영화 총아로 떠오른 권한솔 감독은 영화뿐 아니라 광고 등 영상 산업 전반에 시가 미칠 파급을 미리 보여 준다. 권 감독은 영화학도였다. 자신이 쓴 각본이 번번이 영화사로부터 퇴짜를 맞자 방식을 바꾸었다. 자신의 비전을 보여 주기 위해 시로 영상을 만들기로 했다. AI 단편 영화 <원 모어 펌킨>을 만들어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열린 제1회 두바이국제AI영화제에서 대상과 관객상을 수상했다.

권 감독은 AI 영상 제작 스타트업 스튜디오 프리윌루전을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기

도 하다. 스튜디오 프리윌루전에는 광고 제작 문의가 잇달아 들어온다. 현대자동차도 고객 중 하나다. 스튜디오 프리윌루전은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국내 최초의 동영상 광고 '영원히 달리는 자동차'를 완성해 현대자동차에 전달했다. 에피소드 3편으로 구성된 광고지만 제작 기간은 약 7주에 불과했다. 기존 제작 방식이라면 1편 만들 비용이 3편에 들어갔다.

시는 과거 영상 속 간접 광고<sup>PPU</sup>를 바꿔 주기도 한다. 20년 전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A회사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들어가 있다면 시를 통해 영상 속 소주병 라벨을 B회사 소주로 변환할 수 있게 된 거다.

시라고 만능은 아니다. 여러 권리 침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배우 스칼렛 조핸슨<sup>Scarlett Johansson</sup> 목소리 모방 논란이 대표적이다. 미국 AI 스타트업 오픈시는 지난 5월 음성 기능이 추가된 생성형 AI 'GPT-4o'를 출시하려다 무기 연기했다. 조핸슨 목소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오픈시의 잘못으로 단정 지을 순 없으나 AI 시대 지식 재산권과 초상권, 음성권 침해 우려를 드러낸 일이다. 음성이든 동영상이든 텍스트이든 생성형 AI 프로그램은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 축적된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형성한다. 기존 지식 재산권과 초상권, 음성권이 디지털화돼 있지 않으면 생성형 AI 자체의 존재가 불가능하다. AI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문서, 어떤 동영상, 어떤 음성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졌다면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거다.

AI 관련 회사들이 권리 보유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데이터를 모으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AI 회사가 지식 재산권과 초상권, 음성권 등 각종 무형의 권리를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AI 영화 시대의 관건이다.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sup>AK</sup> 대표는 부천판타스틱영화제 관계자에게 시가 끼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다. "사운드나 라디오, TV, 3D 영화 등이 미친 영향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연극만 보던 관객들이 스크린에 투영된 영상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보다 더 클 것이다"였다. AI 영화의 등장이 영화의 탄생에 비견될 만하다는 의미다. 영화를 포함한 영상 산업이 시의 파고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의 활용은 그 밖에도 무궁무진하다. 성남문화재단은 지난해 10월 제1회 성남페스티벌을 연 데 이어 올해 10월 제2회 페스티벌을 펼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 전이지만, 시를 폭넓게 활용하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이래저래 시는 대세를 넘어 불쑥 우리의 삶이 됐다.

침대와 의자에 대하여

# 사람을 담는, 가장 인간적인 가구

글 김신 디자인 저널리스트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했다. 월간 <미술공예> 기사를 거쳐 월간 <디자인> 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다. 2011~13년에 대림미술관 부관장으로 있었다. 2014년부터 칼럼니스트로 독립해 디자인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다.



⇒ 1945년 가구 디자이너 찰스와 레이 임스 부부가 디자인한 의자

⇒ 18세기 로코코 양식의 베르제르



집 안의 가구는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사물'을 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담는 것이다. 사물을 담는 가구는 수납장과 책장 등이다. 수납장은 주방 가구, 책장, 장식장, 크고 작은 서랍들로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 현대인은 워낙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고 그 물건들은 대부분 사람에게 의해 사용되기를 기다린다. 그 대기의 시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수납 가구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을 담는 가구는 무엇일까. 바로 침대와 의자다. 사람은 집 안에서라면 방바닥에 그냥 눕거나 앉을 수도 있다. 원시 인류는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은 누울 자리와 앉을 자리는 뭔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한 듯하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다. 청결과 위생, 편안함 그리고 지위의 상징 같은 것들이다.

이번 호에서는 사람을 담는 대표적인 가구, 사람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가구인 침대와 의자를 자세히 살펴보자.



▷ 15세기 프랑스 대저택의 방을 묘사한 삽화에 거대한 캐노피 침대가 있다

▷ 고대 이집트 왕인 투탕카멘(BC 1341~1323)의 침대

그렇다면 침대들은 언제 탄생했을까. '문명의 요람Cradle of Civilization'이라는 개념이 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같은 인류의 초기 문명이 시작된 지역을 의미한다. 아기를 요람에 재우는 문명은 이미 침대가 발전한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명이란 잠을 잘 잘 수 있는 공간과 가구를 만들어 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고대 문명에서는 침대를 이용했다. 대부분의 평민은 땅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잤지만, 왕족과 귀족들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매트리스를 공중에 띄우는 침대를 사용했다.

매트리스를 공중에 띄우는 것은 기능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기능적으로는 먼저 바닥으로부터 몸을 분리해 바닥에 있는 여러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바닥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작은 생명체들이 살기 때문이다. 그다음은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으로부터 벗어나 몸을 편안하게 눕히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Pharaoh Tutankhamen의 침대는 나무로 만든 네 각의 틀 안으로 식물의 줄기를 촘촘하게 엮어서 받침대를 만들었다. 바닥과 침대 상판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그곳으로 공기가 통하면서 침대에 누운 몸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어 줬다.

### 침대,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발명품

인류의 사촌인 침팬지는 침대를 만드는 영장류靈長類로 알려져 있다. 침팬지는 나뭇가지로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나뭇잎을 덮어 그들만의 침대를 완성해 그곳에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낸다고 한다. 침팬지가 커다란 나뭇가지 위에 침대를 만드는 이유는 벌레와 세균, 독이 있는 작은 동물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만든 초창기 침대의 목적도 침팬지 침대와 다르지 않았다. 바닥을 기어 다니는 해충이나 작은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침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중세까지만 해도 서양 서민들의 집은 지저분했다. 바닥은 마감이 되지 않은 흙이어서 그곳에 각종 벌레가 돌아다니고 오물로 뒤범벅이 되었으며 쥐까지 살았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은 짚이나 천을 바닥에 깔고 잠을 잤다. 건초가 주요 잠자리여서 건초를 두드려 문치는 행위를 뜻하는 'hit the hay'는 '잠자리에 들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건초 문치 자체가 잠자리였고, 이것을 천 자루에 집어넣으면 매트리스가 되었다. 중세까지 서민들에게 침대란 매트리스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요와 다르지 않았다. 중세까지만 해도 침대bed는 오늘날의 매트리스를 뜻했다. 매트리스를 올려 놓을 수 있는 나무틀은 '침대틀bedstead'이라고 불렀고 이것은 상류 사회의 전유물이었다.

### 귀족들의 방 속 방, 캐노피 침대의 비밀

중세는 물론 19세기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으므로 침대는 집 안에서 가장 값나가는 물건이었다. 특히 상류 사회에서는 네 귀퉁이에 기둥을 세우고 천으로 덮개를 한 캐노피 침대canopy bed가 필수품이었다. 성에 거주하는 왕가의 가족들은 모두 커다란 방에 캐노피 침대를 설치하고 살았다. 중세의 성은 차가운 돌로 만들어져 겨울이 되면 매우 추웠다. 커다랗고 추운 방에서 혼자 자는 것은 에너지 손실이 컸기 때문에, 옆자리에 36도짜리 인간 난로가 있으면 유용했다. 벽난로는 차가운 공기를 데우는 데 한계가 있었고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연기나 그을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워 잠자는 동안 무용지물이었다.



이렇게 왕자와 공주의 방에서는 하인들이 숙식을 함께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고 높은 계급인 로열패밀리들에게 비밀스러워 할 사생활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그나마 캐노피 침대의 커튼이 왕자와 공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방의 차가운 공기나 바람을 막아 주는 기능도 했다. 밤이 되면 왕자와 공

© ddenisen

주 그리고 최측근 하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바닥에 여기저기 누워 새우잠을 청했다. 귀족의 집 또한 주인 부부가 침대에서 잠을 자면 하인들도 주변에서 잠을 자다가 심부름하곤 했다. 심지어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중에도 하인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 그러니 침대의 캐노피와 커튼은 꼭 필요했다.

캐노피 침대는 말하자면 커다란 방 속의 또 다른 방인 셈이다. 귀족의 캐노피 침대가 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크기 때문이다. 1580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어의 거대한 침대Great Bed of Ware'라는 이름의 캐노피 침대는 가로 3.26미터, 세로 3.38미터의 크기다. 이 정도면 3.5평 정도로 한옥의 한 칸짜리 방보다 훨씬 크다. 침대야말로 귀족의 은밀한 방이었으므로 그것은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19세기 산업 혁명으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유럽에서는 비밀스러운 개인의 방이 증가했다. 새로운 중산층은 큰 방에서 하인들과 함께 자지 않고 하인들의 방을 따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캐노피 침대의 커튼이 불필요해졌다. 더 간결한 침대를 추구했으며 나무가 아닌 금속으로 틀을 만든 침대도 등장했다. 근대의 침대는 장식보다 안락함을 추구하며 매트리스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초기 근대의 매트리스는 짚 더미나 새의 털을 사용했으나 나중에는 면과 양모로 대체되었다.

1871년에는 독일인 하인리히 베스트팔Heinrich Bestpal이 최초로 천연 재료가 아닌 인공적 스프링을 넣은 매트리스를 발명했다. 이후 1931년에는 합성수지, 즉 플라스틱의 일종인 라텍스를 넣은 매트리스가 생산되었다. 오늘날 침대 제조사들은 숙면 과학을 바탕으로 인체공학적인 침대를 제작하는 데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의 침대가 하인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화려하게 장식되었다면 현대의 침대는 건강한 숙면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생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내는 만큼, 침대는 정말 중요한 가구가 아닐 수 없다.

**의자의 탄생, 지위를 나타내는 가구**

잠시 생각해 보자. 오늘날 의자만큼 사람의 몸과 밀착된 사물이 있을까. 일을 하거나 대중 매체를 관람하거나 실 때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현대인의 몸은 의자와 붙어 있다. 이토록 흔한 의자가 모든 이들의 민주적인 가구가 된 건 생각보다 역사가 길지 않다. 일단 의자는 편안하게 앉는 것을 목적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침대와는 조금 다른 목적으로 탄생했다.

의자의 역사는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약 1~4만 년 전에 만들어진 토우<sup>†</sup>가 동유럽에서 발견되었는데, 그중에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묘사한 것도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여성으로, 학자들은 신석기 시대가 남녀평등 사회이자 모계 사회였다고 추측한다. 의자에 앉은 사람은 그 부족의 우두머리 여성으로 여겨진다. 신석기 시대의 의자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생활용품이 아니라 지위를 나타내는 도구였다. 기원전 7500년에 존재했던 차탈회위크Catalhöyük의 여신상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부족의 우두머리를 왜 의자에 앉힌 걸까. 의자에 앉는다는 건 땅바닥에 앉는 것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의자는 일종의 경계를 만드는 일이다. 의자에 앉은 사람을 바닥에 앉거나 서 있는 사람과 구별하여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주려는 것이다. 또 의자에 앉는 행위는 다리를 쓰지 않는 점에서 지위가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 어느 시대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은 몸을 이용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편안하게 앉아서 말로 지시를 하는 사람이다. 그는 육체가 아니라 머리를 쓰는 사람이다. 이렇듯 의자는 지위를 표현하는 도구였으므로 생활용품으로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았다.

**산업혁명 후 확산한 의자의 대중화**

서양에서는 일찍이 입식 문화가 자리를 잡아 의자는 상류 사회는 물론 서민들의 생활에서도 나타났다. 하지만 가난한 서민의 의자는 상류 사회의 그것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 등받이가 없는 스톨stool을 사용했다. 식탁에서는 옆으로 긴 스톨에 여러 사람이 함께 앉아 밥을 먹었다. 네덜란드 풍속화가 피터르 브뤼헬Pieter



1569년 네덜란드 풍속화가 피터르 브뤼헬이 그린 <농가의 결혼식>

Bruegel이 그린 <농가의 결혼식>을 보면 모든 하객이 스톨에 앉아 식사하는데 딱 한 사람만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 이 사람은 신부의 아버지다. 물자가 부족한 서민들은 의자 대신 술을 만드는데 쓰는 오크통을 임시변통해 쓰기도 했다. 반면에 귀족들은 등받이와 팔걸이, 쿠션이 있고 화려하게 장식한 천으로 덮은 아주 사치스러운 의자에 앉았다. 대표적인 의자가 바로 프랑스 궁정에서 유래한 포테유fauteuil와 베르제르bergère다. 포테유는 프레임 구조이고 베르제르는 면이라는 차이가 있다.

19세기 제국주의와 산업 혁명으로 부유해진 서유럽에서는 중산층이 증가했고, 그들의 여가를 돕기 위한 대량 생산 의자가 처음으로 탄생한다. 오스트리아의 가구 장인이자 사업가인 미하엘 토네트Michael Thonet가 개발한 토네트 의자가 그것이다. 기다란 나무 봉을 휘는 곡목\* 기술을 발전시켜 아주 저렴한 토네트 의자를 생산할 수 있었다. 나무를 휘어서 의자를 만들면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공정이 사라지므로 쉽고 빠른 제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19세기 중반에 개발된 토네트 의자는 지금까지 수억 개가 팔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자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모든 이들의 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의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기술이 개발되었다. 헝가리 출신 가구 디자이너인 바우하우스의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는 강철관을 처음으로 가구에 적용한 B3THE WASSILY CHAIR를 내놓아 혁신을 일으켰다. 20세



- 1 18세기 신고전주의 양식의 포테유
- 2 1859년 디자이너 미하엘 토네트가 디자인한 토네트 체어
- 3 1925년 가구 디자이너 마르셀 브로이어가 디자인한 B3 체어
- 4 판톤 체어, 디자인: 베르너 판톤, 1967년 LCM(Lounge Chair Metal)

기 중반 미국의 가구 디자이너 찰스 임스Charles Eames와 레이 임스Ray Eames 부부는 합판을 기계로 프레스하는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해 의자의 대중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좌석과 등받이는 합판으로, 다리와 프레임은 강철관으로 만든 의자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었

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학교 의자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에 개발한 사출 성형射出成形, injection molding 의자만큼 의자의 대중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의자는 없다. 1967년 스위스 가구 회사 비트라는 덴마크 디자이너 베르너 판톤Verner Panton이 디자인한 아주 독특한 형태의 의자를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술로 생산하기에 이른다. 플라스틱의 고체 원료를 액체로 녹인 뒤 그것을 의자의 형태로 비어 있는 금형 안으로 쏟아 준다. 금형 안의 빈 공간이 액체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고 몇 분이 지나면 다시 딱딱한 고체가 되어 하나의 의자가 완성되는 것이다. 의자 하나를 생산하는 데 불과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생산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 의자가 하나의 몸체이므로 이것을 '모노블록Monoblock'이라고 칭한다. 오늘날 대표적인 모노블록은 서양에서는 '가든 의자'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플라스틱 의자인 '마트 의자'라고 부른다. 모노블록 의자는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편의점, 카페, 술집, 야외 공연장 등 눈에 밝힐 정도로 많다.

어쩌면 의자는 침대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과 접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보면 인류는 침대에 누워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중 대부분이다. 그러니 이 두 가구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가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슈  
겨  
베  
울 르  
나  
트  
그  
네

마티아스 괴르네 & 마리아 조앙 피레스

MATTHIAS GOERNE  
MARIA JOÃO PIRES

2024년 10월 26일(토) 오후 5시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예매 1544-8117 ● 문의 031-783-8000

Sat 26 October 2024 5:00pm Seongnam Arts Center, Concert Hall ● 티켓 R 80,000 / S 60,000 / A 40,000

아카데미  
아카데미 플러스 명사 특강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 + 맵

8+9월의 큐레이션  
월별 프로그램 가이드

SNART NEWS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SEONGNAM+

아카데미 플러스 명사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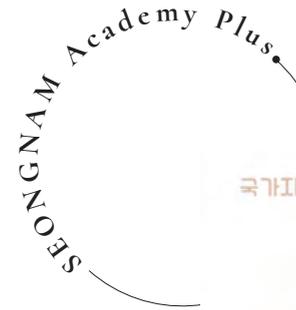
# 지금 여기, 함께 예술을 이야기하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사진 최재우



박기영 교수

우리 시대의 예술가들이 들려주는 예술과 삶, 무대 이면의 생생한 이야기가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명사 특강으로 총 4회에 걸쳐 펼쳐졌다. '낭만과 열정-예술가에게 듣는 살아 있는 예술 이야기'라는 부제처럼, 네 명의 예술가들이 저마다의 철학과 연륜으로 들려준 무대 뒤 진솔한 이야기들은 함께한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 주었다.



국악인 방영기

명사 특강 시리즈는 6월 18일(화), 한국 포크 그룹의 전설 동물원의 멤버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한 박기영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교수의 '동물원을 통해 본 한국 대중가요사'로 시작했다. '널 사랑하겠어' '혜화동' '거리에서' 등 동물원의 명곡 메들리를 직접 피아노로 들려주며 시작한 강연은 동물원을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 대중음악사의 흐름을 차근히 짚어 가며 진행되었다. 송창식·김민기·윤형주 등 젊은 포크 뮤지션들이 기존 음악과 차별화된 '대중음악'을 선보이며 새롭게 태동한 청년 문화를 대변했던 70년대를 시작으로, 1988년 그룹 동물원의 결성과 더불어 80년대 후반 다양한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의 활약으로 이어졌다. 당시 음악 트렌드와 조금은 달랐던 동물원의 수수하지만 독특한 사운드 언더그라운드 신을 이끌며 대중음악계를 뒤집어 놓은 들국화의 활약, 김현식·봄여름가을겨울·조동진·시인과촌장·신촌블루스·유재하 등 '따따라' 아닌 '아티스트'들의 등장까지, 한국 대중음악사의 중심에서 변화를 지켜본 장본인의 생생한 이야기가 청중의 귀를 사로잡았다. 강연은 박 교수가 직접 동물원의 '잊혀지는 것'을 라이브로 들려주는 특별한 앙코르로 막을 내렸다.

6월 25일(화)에는 성남을 대표하는 국악인, 방영기 명창의 국악 이야기 '팔도 소리를 찾아서'가 펼쳐졌다. 국가무형유산 선소리산타령 보존회 이사장이자 전승교육사로, 또 성남 지역문화재·전통문화 발굴과 전승자로 평생 헌신한 방영기 명창은 우리 소리와 전통문화에 지닌 애정을 바탕으로 흥겨움 가득한 1시간을 꾸렸다. 정갈한 순백의 두루마기 차림으로 등장한 방 명창은 팔도 소리탄생의 배경, 기존 인습을 부정하는 과감함으로 의 특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각 지방을 대표하는 민요들을 직접 노래하고, 친근한 유머로 노련

하게 청중의 호응을 이끌었다. 오전 시간부터 힘 있게 뻗어 나가는 방 명창의 우리 가락에 수강생들 모두 함께 어우러지며, 미디어홀은 유쾌한 우리 소리 한마당으로 변신했다.

**두렵지만 행복한 존재, 무대**

7월 2일, 세 번째 명사 특강은 배우 박정자의 차례. 지난해 <고도를 기다리며>에 이어 현재 <햄릿>과 뮤지컬 <영웅>까지 왕성히 활동 중인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 80세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깨끗하고 명민한 모습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대배우의 면모 그 자체였다. 무대에서 깨달은 삶의 철학을 차분히 들려준 박정자는 젊은 시절 임영웅 연출가의 <위기의 여자> 당시 캐스팅 우선순위가 아니었지만 결국 배역을 맡은 뒤 한국 연극사에 큰 획을 긋는 작품으로 남았으며, 일상의 고정 관념을 깨는 노력을 당부했다. 2016

년 국립극장 <햄릿> 당시 오페리아의 아버지 포르니우스 역, <고도를 기다리며>의 럭키 등 남성 배역을 맡은 데 대해서는 “남자건 여자건, 주인공이건 아니건 내겐 모두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라는 묵직한 한마디를 남겼다. 객석에 자리한 6년 차 무명 배우가 “연극을 하며 힘든 점을 어떻게 극복하셨느냐”고 묻자. 그는 “나 역시 지금도 무대가 힘들다. 조명이 비추면 오직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한다. 거기서 더 바랄 게 있다면 관객에게 감동을 선물하는 것”이라는 답을 전했다. 여전히 무대가 두렵다는 대배우의 겸손함에 객석 역시 속연해진 순간이었다.

마지막은 ‘마당놀이’의 대명사이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예인 김성녀의 순서. 평생을 배우이자 국악인으로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김성녀의 무대 인생을 압축적으로 돌아보는 자리였다. 전통 연희를 바탕으로 탄생한 한국적 연극 ‘마당놀이’는 장르



배우 박정자



배우 김성녀

이기 이전에 김성녀 그 자체였던 만큼, 마당놀이를 매개로 한 김성녀 예술의 변천사와 에피소드가 가득 펼쳐졌다. 삶과 사람의 소통 공간인 ‘마당’에서 펼쳐지는 인간애와 해학, 즉흥 연기, 기발한 연출과 관객 참여가 어우러진 마당놀이의 30년 역사는 김성녀가 걸어온 예인의 세월 그 자체였다. ‘30년 타성에 젖어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마당놀이를 그만두었다’던 김성녀지만, 오는 12월에는 국립창극단의 마당놀이 재건 10주년을 맞이해 ‘전설의 귀환다운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전했다.

**함께 공감하며 완성하는 ‘우리’의 시간**

네 명의 예술가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대한 현장 반응은 어땠을까? “50대 전후 감성에 꼭 맞는 강사와 강의”(1회 박기영), “전문적인 지식과 소리를 곁들인 강의로 귀에 쏙 들어오는 즐거운 시간”(2

회 방영기), “한 분야를 걸어온 장인들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점을 느꼈다”(3회 박정자), “전문적인 용어도 수강생 눈높이에 맞춰 어렵지 않게 설명해 주 좋았다”(4회 김성녀)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배우 박정자가 특강 현장에서 남긴 “연극은 관객 여러분이 완성시키는 것이다. 나의 참여로 이 연극을 완성시키겠다 생각한다면, 연극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함께 나누는 그곳에서, 연극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은 아카데미가 준비한 예술 강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을 함께 이야기하고 만들어 가는 아카데미의 시간들 역시 수강생의 참여와 공감으로 한층 더 뜻깊게 완성될 수 있다. 예술의 아름다움, 배우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촘촘히 고민하며 기획한 특별한 시간들은 2024년 2학기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 Seongnam Arts Center Monthly Guide

August - September 2024

Calendar + Map + Programs

##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2024년 08 + 09월

다채로운 음악 콘서트와 전시회부터 드라마틱한 춤과 연극까지,

성남아트센터가 준비한 다양한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감동으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 2024.8

Ⓞ 오페라하우스 Ⓞ 콘서트홀 Ⓞ 앙상블시어터 Ⓞ 성남아트리움 Ⓞ 큐브플라자 미디어홀 ■ 성남문화재단 기획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1	2	3	4
5 ■Ⓞ 월요 시네클럽 <더 문>(13:30)	6	7 ■Ⓞ 무료 정기상영 <남매의 여름밤>(14:00)	8	9	10	11
12 ■Ⓞ 월요 시네클럽 <블레이드 러너>(13:30)	13	14 ■Ⓞ 천원 행복 플러스 <타임리스 심포니>(19:30) Ⓞ 여름방학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19:30) ■Ⓞ 808 호러 릴레이(10:00~23:30, 총 7편)	15	16	17 Ⓞ 2024 최현우 <Answer>(15:00, 19:00) Ⓞ 해금, 가까이 듣기 - 산조와 민요 2(15:00) ■Ⓞ 연극 <우정만리>(15:00)	18 Ⓞ 2024 최현우 <Answer>(14:00, 18:00) Ⓞ 소프라노 이지현 독창회(14:00)
19 ■Ⓞ 월요 시네클럽 <내일을 위한 시간>(13:30)	20	21 ■Ⓞ 무료 정기상영 <꼬마 니콜라의 여름방학>(14:00)	22 ■Ⓞ 마티네 콘서트(11:00) Ⓞ 김준희 해금 독주회(19:30)	23 ■Ⓞ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19:30) Ⓞ 2024 성남 청소년 교향악 페스티벌(19:00) Ⓞ 성남국제원드페스티벌(19:00)	24 ■Ⓞ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14:00, 18:00) Ⓞ 2024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19:30) Ⓞ 文史로 읽는 인문동요 - 너의 하늘을 보아(15:00) Ⓞ 2024 성남 청소년 교향악 페스티벌(17:00)	25 ■Ⓞ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14:00) Ⓞ 하비하비(15:00) Ⓞ 천원 행복 플러스 <업사이클 멜로디>(15:00) Ⓞ 2024 성남 청소년 교향악 페스티벌(17:00)
26 ■Ⓞ 월요 시네클럽 <나, 다니엘 블레이크>(13:30)	27 Ⓞ 가나안 팝 콘서트-스페인일레니엄합창단 내한 공연(19:30)	28 ■Ⓞ 수아레 콘서트 '김태우와 하고 싶은 말'(19:30) ■Ⓞ 무료 정기상영 <미녀와 야수>(14:00) ■Ⓞ 성남아트리움 <비르투오소들의 조우>(19:30)	29	30 Ⓞ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19:30) ■Ⓞ 연극만원 <별이네 헤어살롱>(19:30)	31 Ⓞ 심수봉 전국투어 콘서트 '꽃길' (18:00) ■Ⓞ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Gentle Mind' (17:00) ■Ⓞ 연극만원 <별이네 헤어살롱>(14:00, 18:00) Ⓞ 쇼뮤지컬 <캐리TV러브 콘서트>(11:00, 14:00, 16:30)	

###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

■ 2024 소장품주제기획전 <사유의 정원>	2월 16일~12월 22일	상설전시실
■ 2024 성남작가조명전 3 <이계진: 우연한 삶>	6월 28일~8월 18일	반달갤러리
■ 2024 성남작가조명전 4 <고혜숙: 공간을 유영하는 대화>	8월 30일~10월 20일	반달갤러리
■ 2024 성남의 얼굴전 <리캐더링 REGATHERING>	9월 6일~10월 13일	기획전시실
■ 2024 성남의 얼굴전 야외조각전	10월 9일~12월 5일	야외광장 일대

\* 전시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 갤러리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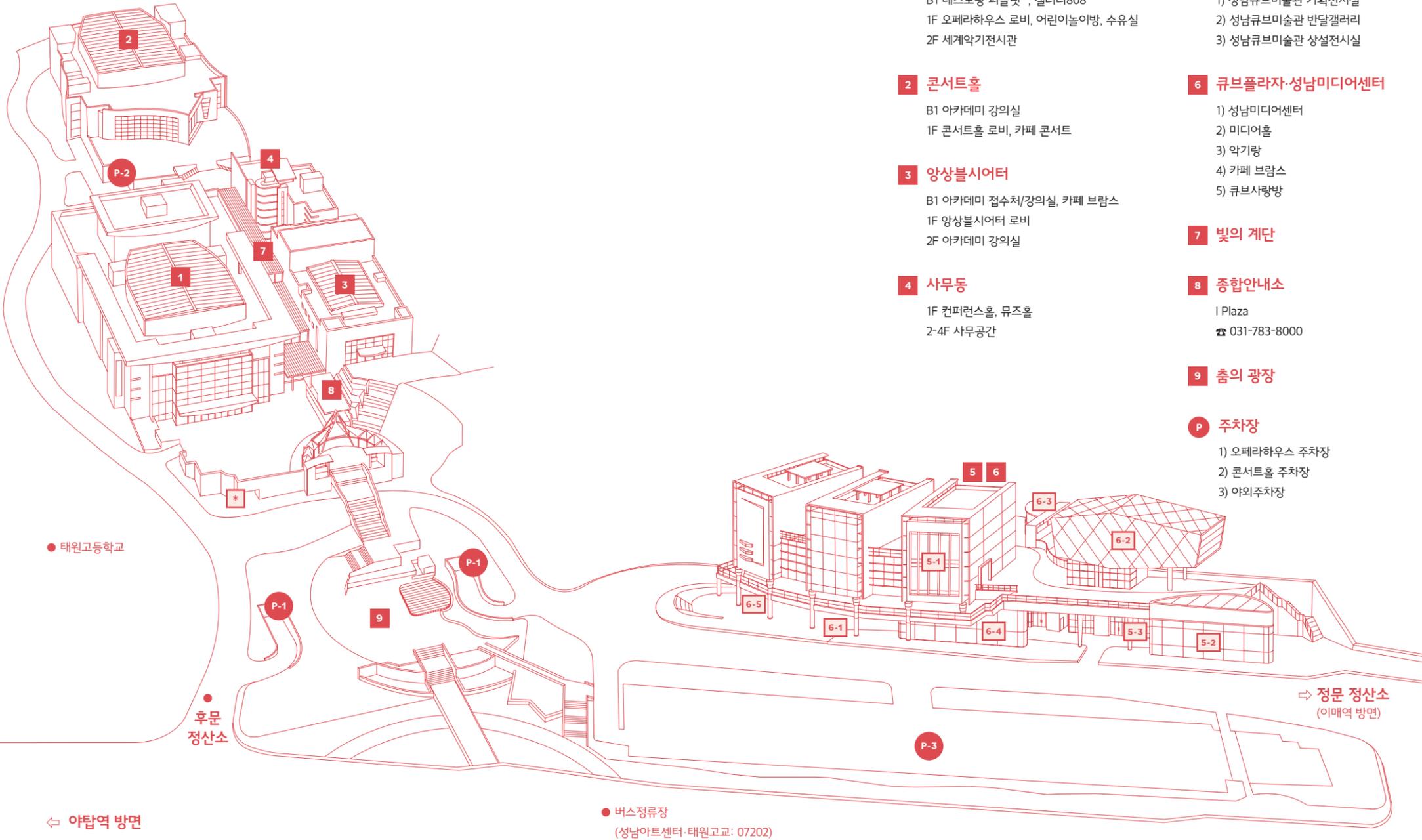
제43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전통미술-공예부문/디자인-현대공예부문	8월 4일~16일
제40회 한국수채화공모대전	8월 20일~31일
아시아미술가협회전	9월 4일~11일
면면한 이야기: 상상의 형태	9월 4일~11일

\* 전시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위 일정은 2024년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최신 정보는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www.snart.or.kr](http://www.snart.or.kr)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도시 이야기	9월 21일~28일
2024 경기도 향토작가 초대전(사진)	9월 21일~28일

# 성남아트센터 공간 안내



## 1 오페라하우스

B1 레스토랑 피글릿 \*, 갤러리808 \*  
1F 오페라하우스 로비, 어린이놀이방, 수유실  
2F 세계악기전시관

## 2 콘서트홀

B1 아카데미 강의실  
1F 콘서트홀 로비, 카페 콘서트

## 3 앙상블시어터

B1 아카데미 접수처/강의실, 카페 브람스  
1F 앙상블시어터 로비  
2F 아카데미 강의실

## 4 사무동

1F 컨퍼런스홀, 뮤즈홀  
2-4F 사무공간

## 5 성남큐브미술관

1)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2)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3)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 6 큐브플라자·성남미디어센터

1) 성남미디어센터  
2) 미디어홀  
3) 약기랑  
4) 카페 브람스  
5) 큐브사랑방

## 7 빛의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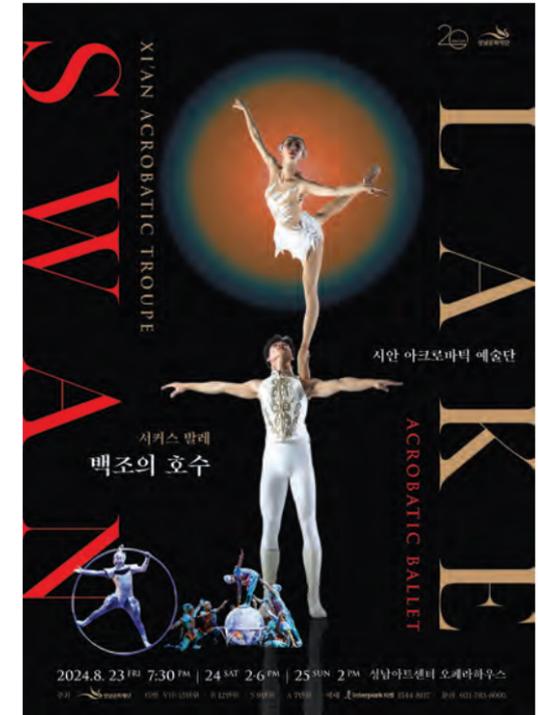
## 8 종합안내소

I Plaza  
☎ 031-783-8000

## 9 춤의 광장

## P 주차장

1) 오페라하우스 주차장  
2) 콘서트홀 주차장  
3) 야외주차장



###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

성남아트센터에서 국내 초연을 앞둔 시안 아크로바틱 예술단의 서커스 발레 <백조의 호수>는 이제껏 접하지 못한 새로운 전율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중국 곡예 예술의 기교, 서양 고전 발레의 우아함을 절묘하게 결합해 인간의 몸이 빚어내는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펼쳐 낸다. 남성 무용수의 머리 위에서 아라베스크 자세를 취하는 여성 무용수의 경이로운 자태 외에도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100개 이상의 현란한 아크로바틱 기술이 쉽 없이 펼쳐지며 눈을 뗄 수 없는 볼거리를 선사한다.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일시 | 8월 23일(금) 오후 7시 30분, 24일(토) 오후 2시-6시, 25일(일) 오후 2시  
티켓 | VIP석 150,000원, R석 120,000원, S석 90,000원 외

문의 | 031-783-8000

<div style="text-align: right;">Monthly Guide</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20%;">  </div> <div style="width: 80%;"> <p><b>마티네 콘서트 8월</b> <b>‘보헤미아에서 들려온 노래’</b></p> <p>성남아트센터의 대표 브랜드 공연 &lt;마티네 콘서트&gt;는 ‘보헤미아의 숲과 들’이라는 주제 아래 체코 출신, 또 체코와 인연이 깊었던 작곡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8월 22일 공연에서는 전체 시리즈의 해설자 역할을 맡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건반 앞에 앉고, 곱고 품위 있는 목소리와 음악성으로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는 소프라노 황수미가 체코의 성악곡과 피아노곡을 들려준다.</p> </div> </div>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 8월 22일(목) 오전 11시

티켓 | 전석 25,000원  
문의 | 031-783-8000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20%;">  </div> <div style="width: 80%;"> <p><b>수아레 콘서트 - 김태우와 하고 싶은 말</b></p> <p>평일 저녁 퇴근 후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사랑받았던 성남아트센터의 수아레 콘서트가 2024년 여름, 그룹 지오디의 명품 보컬 김태우와 함께 특별한 ‘음악 캠핑’을 준비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출신으로 호소력 가득한 가창력의 R&amp;B 보컬 환희, 편안하면서도 트렌디한 음악으로 사랑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조지가 음악으로 가득한 여름밤을 선물한다.</p> </div> </div>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일시 | 8월 28일(수) 오후 7시 30분

티켓 | R석 77,000원, S석 55,000원  
문의 | 문의 031-783-8000

<div style="text-align: right;">Monthly Guide</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20%;">  </div> <div style="width: 80%;"> <p><b>연극만원 5: 별이네 헤어살롱</b></p> <p>평단과 대중에게서 인정받은 연극을 단돈 1만 원에 만날 수 있는 연극만원<sup>滿員</sup> 시리즈가 2024년 총 5편의 작품을 소개한다. 8월의 연극만원은 &lt;별이네 헤어살롱&gt;. 먹고사는 데 바빠 젊은 시절을 잃고, 꿈은 그저 자식이었던 60대 어머니가 자신의 꿈을 찾는 도전 이야기! 시골 마을, 별이네 작은 미용실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생기발랄한 수다 속 엿보이는 삶의 모습이 웃음과 감동으로 펼쳐진다.</p> </div> </div>

장소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일시 | 8월 30일(금)~9월 1일(일) 오후 7시 30분(금), 오후 2시·6시(주말)

티켓 | 전석 10,000원  
문의 | 031-783-8000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20%;">  </div> <div style="width: 80%;"> <p><b>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Gentle Mind’</b></p> <p>로맨틱하고 따뜻한 피아노 연주로 25년이 넘도록 국내 음악 애호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그가 8월 31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을 찾는다. 내한 공연 25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올해 발표한 새 앨범인 &lt;Gentle Mind&gt;를 타이틀로 한 이번 공연에서 그는 피아노 솔로와 함께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한층 풍성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일 예정이다.</p> </div> </div>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 8월 31일(토) 오후 5시

티켓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문의 | 031-783-8000

	<p>🔍 Monthly Guide</p>		<p>🔍 Monthly Guide</p>	
	 <p><b>비르투오소들의 조우</b></p> <p>‘비르투오소’는 기교적으로 뛰어난 연주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명사로서 명연주자, 거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피아니스트 양성원과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그리고 첼리스트 송영훈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이 공연은 이들이 지닌 명연주자로서의 면모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적 깊이, 독창적 표현으로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p>		 <p><b>연극 &lt;의자 고치는 여인&gt;</b></p> <p>극단 물결의 연극 &lt;의자 고치는 여인&gt;은 프랑스 작가 기 드 모파상의 단편 소설을 바탕으로 삼아 고전 텍스트가 가진 아름다움과 깊이를 배우의 말과 움직임으로 통해 세련되고 감각적인 무대 언어로 치환한 작품으로, 시청각적인 즐거움과 함께 사랑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남기는 공연이다. ‘의자’라는 오브제의 다채로운 활용과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 내는 배우들의 신체 움직임이 장면마다 은유와 상징이 풍부한 그림 같은 무대를 빛어낸다.</p>	
<p>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일시   8월 28일(수) 오후 7시 30분</p>	<p>티켓   전석 20,000원, 시야제한석 10,000원 문의   031-783-8000</p>		<p>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일시   9월 13일(금) 오후 7시, 14일(토) 오후 2시-6시</p> <p>티켓   전석 10,000원 문의   031-783-8000</p>	
	 <p><b>클라라 주미 강 리사이틀</b></p> <p>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9월 7일 성남아트리움에서 독주회를 가진다. 이번 공연은 클라라 주미 강이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살아온 삶에서 특히 큰 의미를 지니는 곡 위주로 프로그램을 꾸려 특히 눈길을 끈다. 1부는 클라라 주미 강의 어린 시절에 큰 영향을 준 타르티니와 프로코피예프, 2부 순서는 사제지간으로 엮인 두 프랑스 작곡가, 쇼송과 프랑크의 작품을 들려준다.</p>		 <p><b>2024 성남작가조명전 3</b></p> <p><b>&lt;이계진: 우연한 삶&gt;</b></p> <p>성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창작을 응원하는 ‘성남작가조명전’의 세 번째 전시는 이계진 작가의 &lt;우연한 삶&gt;이다. 성남큐브미술관이 성남에서 거주 또는 활동 중인 작가들의 지원을 위해 지난해 진행한 &lt;2023 성남의 발견&gt; 공모 선정 작가로,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소금과 먹을 주된 재료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작업해 온 &lt;소금산수&gt; 시리즈 중 대표작 그리고 신작을 소개한다.</p>	
<p>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일시   9월 7일(토) 오후 5시</p>	<p>티켓   R석 50,000원, S석 40,000원, 시야제한석 20,000원 문의   031-783-8000</p>		<p>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일시   6월 28일(금)~8월 18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p> <p>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p>	

	<div style="text-align: right;">Monthly Guide</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data-bbox="159 320 538 848"> </div> <div data-bbox="613 320 1045 829"> <p><b>2024 성남작가조명전 4</b>  <b>&lt;고혜숙: 공간을 유영하는 대화&gt;</b>                      성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우수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성남작가조명전'이 올해 네 번째 전시로 &lt;고혜숙: 공간을 유영하는 대화&gt;를 선보인다. 비가시적 존재, 형태의 자연성과 불안전성, 여백의 존재성, 관계성 등 다양한 주제 속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와 '하나의 견고한 미의식'을 작품에 투영해 온 고혜숙 작가의 40여 년 작업 여정을 살펴볼 수 있다.</p> </div> </div>
<p>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일시   8월 30일(금)~10월 20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p>	<p>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p>
	<p><b>2024 소장품주제기획전 &lt;사유의 정원&gt;</b>                      성남큐브미술관이 수집한 소장품을 엄선한 주제 기획전. 동시대 작가 8인(박상미, 고혜숙, 윤길영, 유한이, 유봉상, 조창환, 이계진, 황현숙)의 작품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작가의 '사유의 여정'을 만날 수 있다.</p>
<p>장소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일시   2월 16일(금)~12월 22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p>	<p>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p>





무료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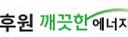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 파크콘서트

## PARK CONCERT

**2024.9.7 - 10.5 매주 토요일 7PM**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주최·주관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후원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  
 KOREA ENERGY

문의 031.783.8000





# 노인과 바다

이자람 판소리

이자람 판소리

2024.  
10.5 토 17:00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티켓 R석 4만원 S석 2만원  
문의 성남아트센터 031.783.8000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판소리 <노인과 바다>는 2019년 11월 26일 두산아트센터에서 두산연경예술상 수상자 신작으로 초연된 작품입니다.



## 2024 성남페스티벌, 양정웅 예술감독 위촉으로 본격 시작

성남문화재단(이사장 신상진, 대표이사 서정림)이 올해 2회째를 맞는 '2024 성남페스티벌' 예술감독에 양정웅 연출가를 위촉했다. 양정웅 예술감독은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2024 성남페스티벌'의 메인 콘텐츠를 연출하게 된다. 양 감독은 2018 평창동계 올림픽 개회식 총연출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을 역임했고, 2023년 화재작인 연극 <파우스트>의 연출을 맡는 등 연극·오페라·영화·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전방위 연출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7월 18일(목) 성남시청에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양정웅 감독의 인면조와 드론 공연 등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콘텐츠를 기억한다"면서 "2024 성남페스티벌이 첨단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콘텐츠들로 4차 산업 특별 도시의 열매를 맺어 갈 성남시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 성남페스티벌'은 첨단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콘텐츠를 통해 사람을 연결하는 축제로 펼쳐진다. 10월 5일(토)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막 공연으로 막을 올리고, 양정웅 감독이 연출하는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메인 제작 콘텐츠는 10월 11일(금)부터 13일(일)까지 만날 수 있다. 성남아트센터를 포함해 울동공원과 성남종합운동장 등 성남시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프로그램들이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진다.

먼저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성남시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위한 AI 활용 대표 캐릭터 공모를 기획했다. 본인 순수 창작물로 타 공모전 발표 이력이 없거나 상품 등록이 되지 않은 독창적 작품을 대상으로 1차 심사와 2차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최우수 선정작 1명(팀), 인기상 2명(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10월 5일(토)부터 9일(수)까지 희망대근린공원 야외공연장, 판교 알파돔 광장, 분당구청 잔디광장에서 공연할 성남 지역예술인(단체) 참가작 공모도 있다. 장르 제한 없이 성남시에 주소를 둔 전문 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총 30분 이내의 공연을 공모한다. 성남문화재단 서정림 대표이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성남 전역을 뜨겁게 달굴 성남페스티벌에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바란다"며 "특히 올해에는 시민부터 지역예술인 등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로, 축제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다양한 행복을 안겨 주고 성남을 대표하는 축제의 위상을 더욱 높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문화재단 이사장(사진 우측)과 양정웅 연출가



시민과 지역예술인의 참여를 위한 공모도 함께 진행

성남미디어센터의 오싹한 바캉스, '808 호러 릴레이'



무더운 여름, 좋아하는 공포영화를 잔뜩 몰아 보며 더위를 잊고 싶다면? 성남미디어센터가 준비한 <808 호러 릴레이>가 정답이다. 8월 14일 단 하루,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미디어홀에서 여섯 편의 공포영화를 릴레이 상영한다. <갯 아웃>과 <어스>로 극찬받은 조던 필 감독의 <늬>2022을 시작으로 치밀한 구성이 인상적인 실화 소재 공포영화 <컨저링>2013, 90년에 한 번, 9일 동안 이어지는 한낮의 광기를 정교한 연출로 그려낸 <미드소마>2019, 아름다운 한국형 잔혹동화 <장

화, 흥련>2003이 이어진다. <장화, 흥련> 상영 후 오후 8시에는 영화 평론가 윤성은이 특별 강연 <공포의 근원을 찾아서-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통해 영화라는 매체가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후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걸작 <싸이코>1962를 거쳐, <파묘> 장재현 감독이 만든 오컬트 3부작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검은 사제들>2015로 새벽까지 이어진 릴레이 상영을 마무리한다.

전 회차 모두 무료 상영으로 진행되며, 성남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미리 온라인 예매를 진행해야 한다. 상영작별 관람 등급이 상이해 청소년의 경우 관람 연령 사전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관람 연령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 동반 유무와 무관하게 입장이 제한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또 일부 상영작은 입장/영화 시작 전 신분증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성남미디어센터 031-724-8370  
예매 기간 | www.snmedia.or.kr 7월 24일~8월 13일(현장 예매 불가)

회차	상영시간	영화명	관람연령
1회	10:00	늬	12세 이상
2회	12:30	컨저링	15세 이상
3회	14:40	미드소마	19세 이상
4회	17:30	장화, 흥련	12세 이상
5회	20:00	특별 강연 <공포의 근원을 찾아서 -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6회	21:20	싸이코	19세 이상
7회	23:30	검은 사제들	15세 이상

# 2024년 2학기 성남아트센터 감상인문 아카데미

- 오페라 살롱 황지연
- 클래식 포레스트 황장원
- 미술애호가 및 컬렉터과정\_9회 김중현
- 세계 미술관 산책 이은화
- 즐거운 음악 감상 김상현
- 아트 앤 큐레이션 최정주
- 철학과 미학으로 해석해 가는 서양미술사 윤우학



**접수기간**  
온라인 접수 : 2024. 7.17(수) 10:00 ~  
현장 접수 : 2024. 7.19(금) 10:00 ~

**강의기간**  
2024. 9.3(화) ~ 12.11(수),  
13회 과정  
(강좌별 첫 주 무료 오픈특강)

**강의장소**  
큐브플라자 3층 미디어홀

**수강료**  
180,000원

**문의**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031)783-8156  
(평일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www.snart.or.kr)  
아카데미 참고



성남아트센터  
Seongnam Arts Cente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후원 활동을 통해 기관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남아트센터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자체 진행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법인회원**

**은하수회원**  
박지향 (주)유엔젤 부회장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달무리회원**  
신현규/김복선

**단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이노엘 대표  
김진명/심정자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서창우/석남연 한국파파존스(주) 회장 / 동양언우보험대리점 대표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손일선/김상일** 태평염전 회장 / 태평염전 사장  
**안봉혁/어은경**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이완근/홍은희** (주)신성이앤지 회장  
**이재환/한정의** (주)위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정대혁/김대원** 나우(주) 대표이사 회장

**칠죽회원**  
김부경/김모민 동서메디케어(주) 대표이사 / 동서메디케어(주) 이사  
김상환/오다영 아람휴비스(주) CEO  
**박동순/강송희**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변봉덕/이매연**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우문식/조남숙** (주)인베이드투자자문 사장 / 부동산라이프 대표  
**이상우/강지선**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단천문화포럼 100인회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고모아트옥션 이사

**단천회원**  
박 철/하정진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여영동/이육자 前 (주)씨너스 회장  
최희계순/김순자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칠죽회원**  
강정완/정병태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강효주/이동연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김길복/이상숙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김동술/민인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 (주)예장디앤씨 이사

김명자/이승오 산후조리원 라크렐 대표  
김문기/김인숙 (주)금화 대표이사  
김연태/이주숙 (주)비스타글로벌 대표  
김영수/원종순 前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원 이사장

김국현/정승희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회장  
김진환/이화용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검장

김태호/김경자 前 농협중앙회 이매동지점장  
남궁원/김순미 남송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장  
남선우/정정섭 국제로타리 3600지구 前 총재  
마희자/조득환 서진공방 대표 /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박미경/강대식 중원구 보건소 약사 / (주)평화기업 이사  
배지영/윤영민 로즈피부과 분당점 원장 / 로즈피부과 청담점 원장

백종훈/지용애 한국디지털콘텐츠(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서정림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손의명/손외자 치과과사 / 한국화가  
故송 자/탁순희 前 대교 이사장  
신동화 경기일보 상무  
신상진 (재)유엔젤보이스 제작감독

오종영/이승희 신영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유성희/유성은 (주)인홍 대표이사 / 평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윤영상/박인영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이연옥/조상수 성남정자초등학교 교사 / 낙원중학교 교장

이경화/이정우 (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  
최이성무/김복기 前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이은화/정인희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이임수/이화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이정식/고옥주 (주)서울문화사 대표이사 사장  
최이종덕/김영주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창립자

이지은/김순건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호순/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임상규/정효정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임현주/김윤선 AMK  
장세영/김준식 한화엔엑스엠 대표이사 / 잡코리아 CTO

장형환/임경희 N스페이스 회장 / N 갤러리 관장  
전명자/김정길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정성조/심윤경 (주)패션어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정승립/한정복 세일기공(주) 대표  
정용석/이승걸 성남FM방송국 대표  
정은경/박민걸 모란새로운악국 대표 / 명당한의원 한의사

정은기/박은숙 前 국립서울병의원장 / 서양화가  
정인택/유경희 前 국립서울병원원장 / 서양화가  
조남주/이규철 신한라이프 명예부사장  
최병주/박인수 미술단체 <線과色> 前 명예회장  
세무법인 청담 대표, (재)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최선그룹형지 회장  
최병오/박종길 패션그룹형지 회장  
한병무/최정자 (주)삼화 F&F 회장  
허용무/구은희 (주)가람삼업 대표이사 회장  
허허 참/홍애자 前 상어제약 회장 / 수필가  
황광석/조영순 (주)케이씨피 대표

**이매회원**  
김선애 (재)사랑정원 이사장  
박영일 (주)글로벌미트플랫폼 GMP 대표이사  
서미라 21세기 미금의원 원장  
윤향남 화가  
전동욱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부사장  
주재근 정효문화재단 대표  
최은희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김성민** 운중농원갈비 대표  
**목영애**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 (사)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 이사장  
**박미영**

**백선정** (사)코리아뮤직소사이어티 대표이사  
**오미주** 성악가  
**우주호** (여)한솔교육 대표이사  
**이윤이** HCS 대표  
**정휘재** 지휘자  
**조현우** 변호사  
**최진욱**

**명예회원**  
박명숙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신선희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무대미술가

**김성민** 운중농원갈비 대표  
**목영애**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 (사)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 이사장  
**박미영**

**백선정** (사)코리아뮤직소사이어티 대표이사  
**오미주** 성악가  
**우주호** (여)한솔교육 대표이사  
**이윤이** HCS 대표  
**정휘재** 지휘자  
**조현우** 변호사  
**최진욱**

**명예회원**  
박명숙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신선희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무대미술가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박지향 부회장 강효주, 황광석  
이사 김연태, 박동순, 서정림, 정대혁, 황광석  
감사 김길복, 김문기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이메일 mecenat@snart.or.k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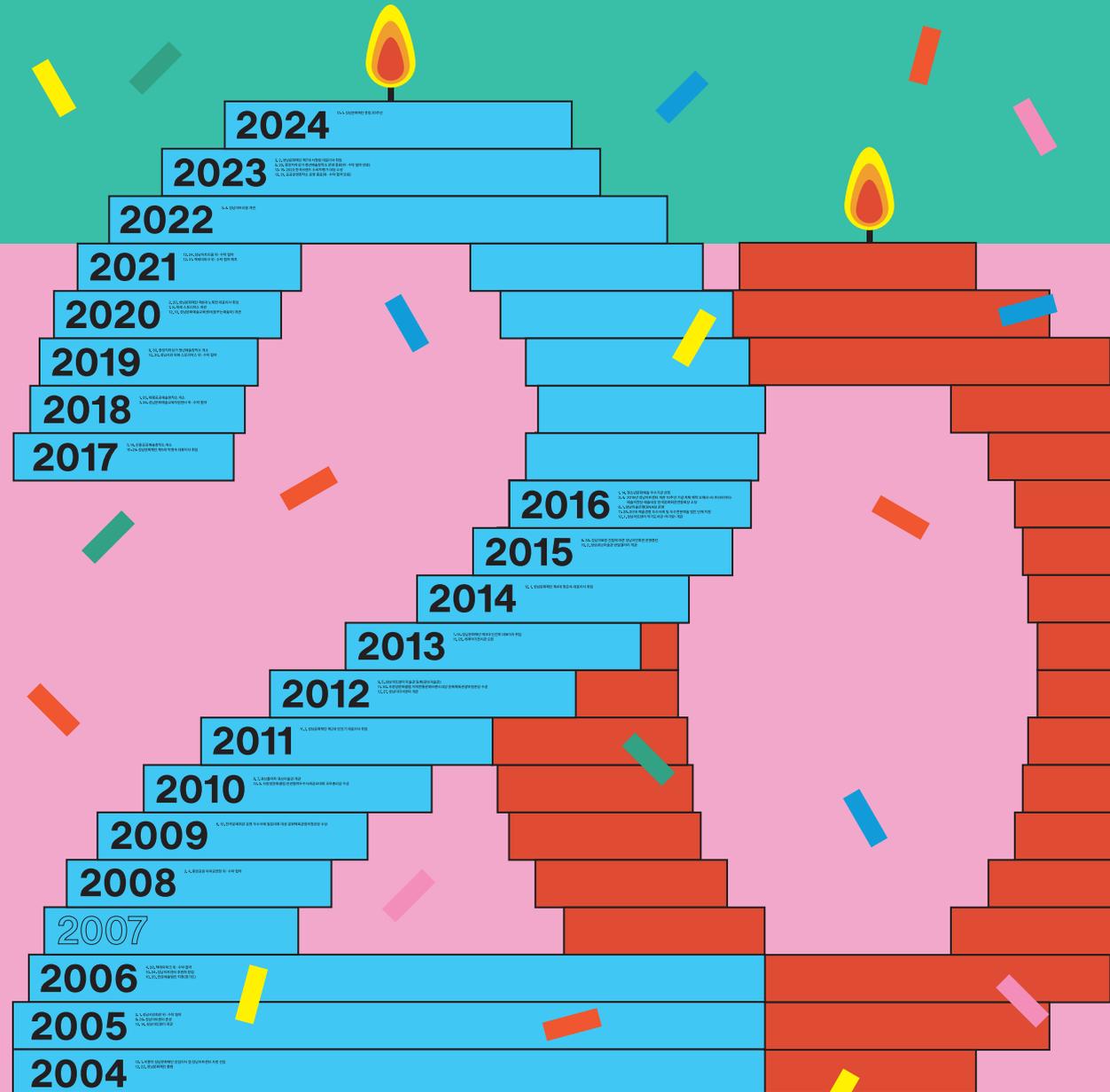


후원회 가입  
안내 바로가기

2004-2024  
성남문화재단 창립 20주년

스무살

예술이·다·너!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808, SEONGNAM-DAE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3514  
2004-2024 ©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